

『黃帝內經』의 天文學에 關한 研究

- 秦漢 時代의 天文學과 『黃帝內經』에 나타난 天文學의 考察 -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金伸炯 · 張祐彰 · 丁彰炫*

A Study on Astronomy(天文) appeared in 『Hwangje-Naegyeong(黃帝內經)』

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Kim Shin-Hyung-Jang Woo-Chang-Jeong Chang-Hyun*

『Hwangje-Naegyeong』 recorded The Twenty Eight Constellations(二十八宿), the polaris, the Seven stars(北斗七星) and the Five stars(五星) and it accepted the astronomy of that time. The Twenty Eight Constellations assigned seven stars in the four cardinal points according to the ecliptic and became the criterion observing the way of the sun and the moon. 『Hwangje-Naegyeong』 explained that The Twenty Eight Constellations bring about the change of weather and role as criterion about the Universe Gate-Earth Door(天門-地戶). The Five Elementary attachment of the Twenty Eight Constellations is based on the direction of the earth in spring. The direction of the Twenty Eight Constellations changes from the viewpoint of celestial body in other seasons.

『Gugungpung-pyeon(九宮八風篇)』 and 『Selo-pyeon(歲露論)』 explained that the azimuth of the polaris and the Seven stars are related to the change of weather. 『Gigyobyeondaelon(氣交變大論)』 said that we can predict the Taegwa(太過) or Bulgeub(不及) of O-un(五運) by the orbital tracks and magnitude of the Five stars. It means that the astronomical observation is correctly performed in that time. The learning of Un-Gi(運氣學) is the study on the reciprocal action of heaven and earth. Besides the changeable disease during the 24 solar terms is related to climatic change produced by movements of heavenly bodies. For this reason, I think that the understanding of astronomical background will help to research The learning of Un-Gi.

key words : Astronomy, the Twenty Eight Constellations, the Five stars, the azimuth of the polaris, Un-Gi.

I. 序論

天文은 하늘의 무늬, 즉 해와 달을 비롯한 하늘에서 보여지는 모든 형상을 말한다. 동양에서는 고대로부터 하늘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보고, 그것이 지상에 미치는 영향을 예견하는 경험과 기술을 축적하여 왔

* 교신저자: 丁彰炫,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02-961-0337, jenogch@khu.ac.kr

다. 司馬遷이 『史記』의 저술 동기를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究明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듯이, 동양에서는 특히 ‘하늘과 인간의 관계’(天人之際)를 중시하였다.

『黃帝內經』에서도 “人與天地相應”이라 하여 인간의 건강과 질병을 天人相應의 원리로 해석하고 있는데, ‘天人相應’은 養生의 측면뿐만 아니라 인간은 小宇宙로서 天地의 기운을 그대로 받고 태어났다는 구조적인 면까지 포함하고 있다. 즉, 宇宙의 구조와 순환원리는 人體의 生理, 病理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人體의 生成過程과 構造가 모두 大宇宙를 본받아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天文學的 知識은 한의학 이론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干支의 성립과 經絡의 순환, 藏府에 관한 이론도 天文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運氣學이 氣候와 疾病의 推算을 연구함에 있어서 근본이 되는 것은 宇宙, 즉 天地間에 나타나는 天文現象이며, 運氣學의 五運六氣, 天干地支에 대한 내용도 이러한 天文現象을 바탕으로 하였다. 따라서 『黃帝內經』에 나타나 있는 천문학적 내용을 살펴보면 한의학의 연구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黃帝內經』의 저작 시기는 전국에서 진한시기로 추정되며, 운기칠편은 후한 이후에 성립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黃帝內經』의 천문이론도 당시의 천문학적 연구에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한대는 천문학뿐만 아니라 醫學, 農學, 算學 등 중국 전통과학을 대표하는 전문분야들이 형성된 시기이며, 그밖에도 소위 ‘儒敎의 국교화’로 표현되는 사상적인 통일 등이 이루어진 시기였다. 천문학에 있어서도 한대에는 이전 시기의 천문학적 지식을 축적하여 체계화한 시기로서, 『黃帝內經』에 나타나 있는 천문학적 내용도 주로 한대의 천문이론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본 論文에서는 『黃帝內經』에 나타나 있는 天文學에 대해 살펴보고, 『黃帝內經』의 天文學이 의학적으로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연구해보고자 하였으며, 운기학의 성립에 대한 천문학적 배경을 조사해 보자 하였다.

II. 本 論

1. 『黃帝內經』에 나타난 天體運行

天體는 순환하는 日月五星과 항상 제자리를 지키면서 움직이지 않는 恒星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天球의 중심인 北極星이 대표적으로 고정된 恒星이다. 北斗七星과 北極星, 二十八宿의 恒星은 제자리에서 고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恒星을 이용하여 日月五星을 관측하는 기준점으로 삼았다. 하늘의 중심에는 北極星이 중심에 위치하고, 28宿가 하늘의 사방을 담당하며, 그 주위를 日月과 五星이 운행한다. 28宿는 赤道의 사방에 분포된 28개의 별자리를 말하는데, 이 주위를 해와 달과 五星이 1년을 주기로 순환하고 있는 것이다.

天文의 변화는 고정된 北極星과 二十八宿의 주위를 陰陽으로 대표되는 日月과 五行의 精氣를 담고 있는 五行星이 순환하면서 나타난다. 『黃帝內經』의 天文理論은 秦漢代의 天文學에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東洋 天文學이 독자적인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은 漢代에 일어난 일이었다. 즉, 中國天文學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天文과 曆法 그리고 天體構造論의 모든 부분들이 漢代에 그 틀을 형성하였으며, 이후에도 이런 모습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¹⁾. 『黃帝內經』에서도 二十八宿와 北極星, 北斗七星, 日月五星에 대한 관측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시대적 배경하에 『黃帝內經』의 天文學的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天體와 日月五星의 循環

(1) 東洋天文學의 天體循環에 대한 理解

天體의 별들은 모두 천구위를 순환하고 있는데, 하루를 주기로 살펴보면 천구위의 모든 별들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것은 천체를 지구상에서 관찰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지구의 자전에 의해 모든 별들이 동쪽에서 서쪽의 시계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1년을 주기로 살펴보면 고

1) 李文揆. 古代 中國人의 하늘에 대한 天文學的 理解. 理學博士學位論文. 1997. pp. 1-2.

정된 恒星과 日月五星의 순환방향이 서로 다르게 보이는데, 이것은 지구가 1년을 주기로 공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천구상에 고정된 二十八宿의 주위를 日月五星이 1년을 주기로 순환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동양에서는 1년을 주기로 하는 천체와 日月五星의 순환에 대하여 많은 학설이 있었는데,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보고 『黃帝內經』에 나타난 天體循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천체를 관측하면 두가지 측면 즉 천체의 순환과 日月五星의 두가지 순환운동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南北極을 축으로 해서 천체가 하루에 한 번씩 왼쪽으로 도는 좌회전 운동으로서 동서양의 전통적인 우주관은 천체가 하루에 한 바퀴씩 왼쪽으로 돈다는 左旋說이라는 점에서 일치하는 면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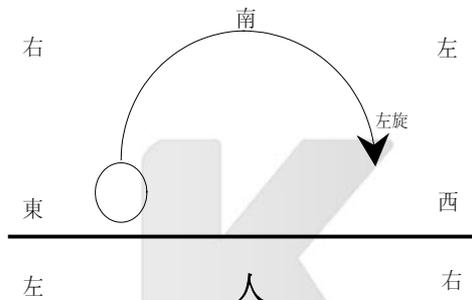


그림 1 行星의 순환과 左旋, 右旋의 비교

여기서 左旋, 右旋의 좌우방향은 行星을 기준으로 한 방향을 의미한다. 사람이 남쪽을 향해 南面하였을 때, 우리가 보기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순환하는 것이 오른쪽으로 가는 右旋으로 보인다. 그러나 行星을 기준으로 하여 보면 동쪽이 우측, 서쪽이 좌측이 되어 왼쪽으로 순환하는 左旋의 방향이 된다. 즉, 동양 천문학에서는 움직이는 行星을 기준으로 하여, 동쪽에서 서쪽으로 순환하는 것을 左旋이라 하였다.

두번째는 日, 月, 五星이 지구를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도는 운동으로서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는 지구의 운동으로 인해 관찰되는 운동이다. 예를 들어 태양은 지구를 일년에 한 바퀴 오른쪽으로 도는 것처럼 보인다. 동양에는 이 두번째 운동을 설명하는 방식이 두가지로 나뉘는데, 여기서 左旋說과 右旋說이

갈라지게 된다²⁾.

전통적인 曆法에서 말한 右旋說은 日月五星이 직접 오른쪽으로 순환한다고 하였는데, 이를 ‘天左旋 日月星辰右旋’이라 명칭하였다. 天左旋, 日月星辰右旋은 천문관측의 기준점인 北極星 위의 하늘은 좌측으로 상승하고, 日月星辰은 우측으로 하강한다는 것을 말한다. 天左旋, 日月星辰右旋의 내용은 그 후 동양 천문학의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은 원리로써 인정되어 왔다³⁾.

반면에 左旋說은 후대에 와서 朱子가 주장한 내용으로, 천체와 함께 日月, 五星이 왼쪽으로 돈다고 설명한다. 즉, 日月五星의 좌회전 속도가 항성보다 느려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 뿐이며, 실제로 日月五星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朱子は 『朱子語類』에서 “하늘의 길은 왼쪽으로 도는데, 동쪽에서 서쪽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해와 달은 오른쪽으로 움직인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말하기를 曆家は 나아간 수치로 계산하기 어려워서 뒤쳐진 수치로 계산하였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움직인다고 말했다... 지금의 사람들은 도리어 달의 운행이 빠르고 해의 운행은 느리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하늘과 해와 달, 五行星은 모두 왼쪽으로 돈다. 내가 살펴보니, 하늘 위의 해, 달, 별, 五行星은 오른쪽으로 움직인 적이 없고, 단지 하늘을 따라서 돌 뿐이다.”⁴⁾라고 하여, 日月五星의 左旋說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左旋說은 朱熹에게 지지를 받은 이후 성리

2) 야마다 게이 지 著. 김석근 譯. 朱子の自然學. 서울. 통나무. 1998. pp. 219-223.
 3) 右旋說을 설명할 때 흔히 드는 비유가 앞서 살펴본 蓋天說의 설명 즉 “左로 돌고 있는 맷돌과 그 위에서 우로 도는 개미의 비유”이다. 개미가 右로 가지만 맷돌이 左로 더 빨리 돌므로 전체적으로 보자면 좌로 돌게 된다. 그러므로 右旋說 역시 天體가 左로 돈다고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左旋說이라고 할 수 있다.
 4) 黎靖德. 朱子語類. 서울. 청계출판사. 1998. pp. 153-159. 『朱子語類』: “問, 天道左旋, 自東而西, 日月右行, 則如何? 曰, 曆家以進數難算, 只以退數算之, 故謂之右行...今人卻云月行速, 日行遲, 此錯說也. 但曆家以右旋爲說, 取其易見日月之度耳 …… 天道與日月五星皆是左旋...某看天上日月星不曾右轉, 只是隨天轉.”

학자들의 기본적인 宇宙 모형이 되었다.

이와 같이 동양 천문학에서는 日月五星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방식에 따라서 전통적인 曆法에서 말한 左旋說과 후대에 朱子와 성리학자들이 제시한 右旋說로 나뉘어진다.

(2) 『黃帝內經』의 天體循環에 대한 考察

天體의 운행에 대하여 『六節藏象論』에서는 “하늘은 陽에 땅은 陰에 속하고, 해는 陽에 속하며 달은 陰에 속한다. 해와 달의 운행에는 분할되는 천체의 구역과 도수가 있고, 주행에는 궤도가 있는데, 해가 1도를 운행할 때 달은 13도를 운행하고 나머지가 있으니, 그러므로 1개월이 30일인 큰 달과 1개월이 29일인 작은 달의 365일이 1년을 이루고, 남은 날을 누적했다가 윤달을 세운다. 冬至일의 자정에 초하루를 확정하고, 윤년이 낀 달의 보름날에 해시계를 세워 節氣와 태양운행의 편차를 바로잡으며, 마지막에 나머지를 추산하면 天度가 완전히 갖추어진다.”⁵⁾라고 하였다.

『六節藏象論』에 나타나 있는 “日行一度 月行十三度而有奇焉”라는 日月의 運行에 대하여는 두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日行, 月行을 해와 달이 오른쪽으로 순환하는 것으로, 태양은 하루 동안에 一度만 운행하며, 달은 태양보다 빨라서 하루 동안에 十三度有奇를 움직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달의 운행은 빠르고 해의 운행은 느리게 움직인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천체의 순환은 앞서 말한 天左旋, 日月星辰右旋의 右旋說에 해당한다⁶⁾.

王氷은 日月의 運行에 대해서 “해는 늦게 가므로 하루에 하늘을 1도 움직여서 365일에 하늘을 한바퀴 돌고, 나머지가 남는다. 달은 빠르게 움직이므로 하루에 하늘을 13도 남짓 행하여 29일에 하늘을 한바퀴 돈다. 나머지가 있다는 말은 13도 말고 다시 19분의 7도를 행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月行十三度而有奇라고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⁷⁾.

즉, 王氷도 전통적인 曆法의 설명과 같이 해와 달이 직접 운행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달이 태양보다 빠르게 움직인다는 天左旋, 日月星辰右旋의 說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후대에 와서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데, 張介賓은 朱子와 같이 해와 달이 왼쪽으로 순환하며, 해가 빠르고 달이 늦게 운행한다는 左旋說을 따라서 설명하였다. 張介賓은 『類經』「運氣類」에서 “日行一度, 月行十三度は 해와 달이 물러나는 수치이다. 日月은 하늘을 따라서 운행하며, 모두 동쪽에서 서쪽으로(左旋) 순환한다. 하늘의 운행은 빠르고, 해의 운행은 느리며 달의 운행은 더욱 느리다.”⁸⁾라고 하여, 朱子の 左旋說에 따라서 천체와 日月五星의 순환을 설명하였다.

또한 岡本爲竹도 『運氣論奧診解』에서 右旋說이 천체의 운동을 올바르게 이해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曆法에서는 日月이 오른쪽으로 운행한다고 생각하지만, 『內經』의 “日行一度 月行十三度而有奇”는 日月의 운행이 천체운동의 度數보다 느림을 말한 것일 뿐이며 日月이 오른쪽으로 순환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⁹⁾. 즉 『運氣論奧診解』에서는 『內經』에서 언급한 日月五星의 운행방식을 朱子가 언급한 바와 같이 日月은 실제로 왼쪽으로 움직이며, 겉보기에 오

5) 『素問·六節藏象論』: “天爲陽, 地爲陰, 日爲陽, 月爲陰. 行有分紀, 周有道理, 日行一度, 月行十三度而有奇焉, 故大小月三百六十五日而成歲積氣餘而盈閏矣. 立端於始, 表正於中, 推餘於終, 而天度畢矣.”

6) 『晉書·天文志』에서는 맷돌과 개미의 비유로 이를 설명하고 있다. “周髀家가 말하기를 ‘하늘은 蓋(日傘)를 펼친 것과 같은 圓形이고 땅은 바둑판과 같은 方形이다. 하늘의 바깥쪽은 맷돌을 돌리는 것과 같이 東에서 西로 左行한다. 해와 달은 右行하면서 하늘이 左로 도는 것에 따른다. 따라서 해와 달은 실제로 동쪽으로 운행하고 하늘은 그것을 끌고 서쪽으로 지는 것이다. 비유하면 맷돌 위에 개미가 기어가는 것과 같아서 맷돌은 왼쪽으로 돌지만 개미는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다. 맷돌은 빠르고 개미는 느다. 따라서 개미는 어쩔

수 없이 맷돌에 따라 왼쪽으로 도는 것이다.”

7) 尹暢烈 譯. 黃帝內經素問 王氷注. 서울. 珠民出版社. 2003. 「六節藏象論」: “日行遲, 故晝夜行天之一度, 而三百六十五日一周天, 而猶有度之奇分矣. 月行速, 故晝夜行天之十三度餘, 而二十九日一周天也. 言有奇者 謂十三度外 復行十九分之七. 故云月行十三度而有奇也.”

8) 『類經』「六六九九以正天度而勢氣立」: “日行一度, 月行十三度者, 言日月之退度也. 日月循天運行, 俱自東而西. 天行速, 日行遲, 月行又遲.”

9) 劉溫舒 著. 岡本爲竹 撰. 尹暢烈 譯. 運氣論奧診解. 大田大學校 原典醫史學教室. pp. 118-120.

른쪽으로 보인다고 이해하였다. 이러한 차이점은 천문학적 관점이 달라짐에 따라서, 『內經』의 문장을 다르게 설명한 것임을 알 수 있다.

天體의 운행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天地氣運이 돌아가는 순환방향에 대하여 『內經』에서 언급한 부분을 살펴보면 主氣와 客氣의 순환방향이 있다¹⁰⁾. 「天元紀大論」과 「五運行大論」에서는 主氣는 해마다 五行의 相生에 따라 시계방향으로 순환하고 客氣는 시계반대방향으로 순환한다고 하였다. 主氣의 순환은 실제 천체의 二十八宿의 시계방향 순환과 일치하는데, 主氣는 해마다 春夏秋冬의 四時에 따라 운행하므로 宇宙의 五行運動을 그대로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客氣는 南面한 상태에서 시계반대방향으로 순환하게 된다¹¹⁾.

2) 二十八宿에 대한 考察

二十八宿는 하늘의 黃道와 赤道 부근에서 천구를 28개의 별자리에 따라 나눈 것¹²⁾을 말한다. 28宿는 하늘을 동서남북의 사방으로 구획하고, 주기적으로 순환하는 日月五星을 관측하기 위한 기준좌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28宿는 태양이 지나가는 길에 해당하는데, 태양이 28宿 중 어느 별자리를 지나가는가에 따라서 二十四節氣의 변화와 陽氣의 성쇠를 정하는 기준점으로 삼은 것이다.

二十八宿를 동서남북으로 구분한 것은 五行의 방위에 따른 것인데, 黃道상의 二十八宿는 춘하추동의

계절에 따라서 각각 7宿씩 그 모습을 드러내며 각 방위에 해당하는 五行의 精氣가 지상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28宿는 十干化運을 통해 지상의 기후변화를 일으키며, 지상의 陽氣가 시작하고 끝나는 天門, 地戶의 좌표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黃帝內經』에서는 28宿를 인체의 十二經脈으로, 태양을 陽氣에 비유하였는데, 「衛氣行」에서는 衛氣가 하루 동안에 전신의 經絡을 순환하는 것이 태양이 1년동안 黃道상에서 二十八宿를 순환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二十八宿는 태양의 운동을 측정하는 기준좌표가 되며, 東西南北의 방위에 해당하는 별자리가 五行의 精氣를 통해 지상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또한 二十八宿의 별자리에서 나타나는 五行의 기운이 서로 합하여 大運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것을 十干化運이라고 한다. 아래에서는 역사적으로 二十八宿를 어떻게 관측하고 이해하였는지를 조사하고, 『黃帝內經』에 나타난 二十八宿를 살펴보고자 한다.

(1) 二十八宿의 歷史的 考察

二十八宿는 상고시대에 이미 이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으나, 二十八宿에 대한 명칭이 모두 나타난 것은 『呂氏春秋』에서 찾아볼 수 있다. 『呂氏春秋』에서는 “하늘에는 九野가 있고 땅에는 九州가 있다. …… 무엇을 九野라고 하는가? 중앙은 鈞天이라 하며, 그에 해당하는 별자리는 角, 亢, 氐이다. 동쪽은 蒼天이라 하며, 그 별자리는 房, 心, 尾이다. 동북쪽은 變天이라 하며, 그 별자리는 箕, 斗, 牽牛이다. 북쪽은 玄天이라 하며, 그 별자리는 婺女, 虛, 危, 營室이다. 서북쪽은 幽天이라 하며, 그 별자리는 東壁, 奎, 婁이다. 서쪽은 顯天이라 하며, 그 별자리는 胃, 昂, 畢이다. 서남쪽은 朱天이라 하며, 그 별자리는 觜, 參, 東井이다. 남쪽은 炎天이라 하며 그 별자리는 輿鬼, 柳, 七星이다. 동남쪽은 陽天이라 하며 그 별자리는 張, 翼, 軫이다.”¹³⁾라고 二十八宿를 설명하였다.

10) 天體의 순환과 天氣의 순환방향이 다르다는 내용은 동양 천문학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동양 천문학에서는 ‘歲陰’이라 하여 천체의 운행과 반대되는 가상의 천체를 상정하고 있다. 12辰은 12地支를 방위에 따라 늘어놓은 것을 말하는데, 12辰의 방향은 歲星(목성)의 운행과 반대로 이루어져 있다. 즉, 歲星은 서에서 동으로 운행하고 그에 따라 12次가 시계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비해, 12辰은 시계반대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것은 歲星과 같은 주기이지만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가상의 천체인 세음(歲陰)을 도입하여 천체순환을 이해하고자 한 것이다.

11) 白裕相. 內經·運氣篇의 標本中 概念에 대한 研究. 慶熙大學校碩士學位論文. 1998. pp.8-10.

12) 陳遵媯의 『中國天文學史』第二冊 (대만, 明文書局, 1993, pp.62-65)을 참조바람: 28宿가 赤道를 기준으로 한 별자리인가 또는 黃道를 기준으로 삼은 별자리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나, 대체로 黃道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13) 『呂氏春秋』: “天有九野, 地有九州. …… 何謂九野, 中央曰鈞天, 其星角亢氐. 東方曰蒼天, 其星房心尾. 東北曰變天, 其星箕斗牽牛. 北方曰支天, 其星婺女虛危營室. 西北曰幽天, 其星東壁奎婁. 西方曰顯天, 其星胃昂畢. 西南曰朱天, 其星觜參東井. 南方曰炎天, 其星輿鬼柳七星. 東南曰陽天, 其

『呂氏春秋』에서는 28宿를 九野說에 따라서 東西南北과 東北, 西北, 西南, 東南의 여덟 방향과 중앙의 鈞天에도 배속하고 있는데, 28宿 중 角, 亢, 氐 3개의 별자리를 중앙에도 배속하였다. 28宿는 黃道 부근의 별자리로서 실제로 하늘의 가운데에는 있지 않은데, 『呂氏春秋』에서는 중앙에 있는 하늘인 鈞天에도 角, 亢, 氐를 배속하고 있다. 『黃帝內經』에서는 二十八宿를 동서남북의 사방으로 배속하고 있는데 비하여, 『呂氏春秋』에서는 二十八宿를 九野說에 따라서 중앙에도 배속한 차이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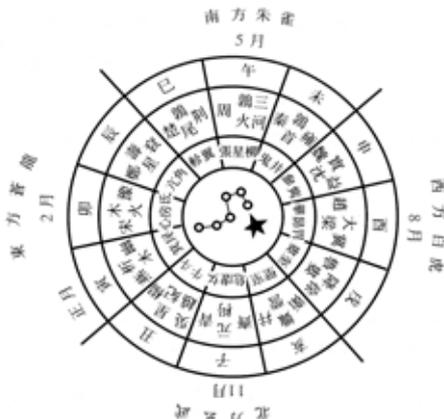


그림 2 二十八宿圖¹⁴⁾

『黃帝內經』과 같이 二十八宿를 동서남북으로 배속한 것은, 『史記』「天官書」¹⁵⁾에서 하늘을 중앙과 사방으로 나누고 28宿를 동서남북의 사방에 배속시킨 이후의 일이다¹⁶⁾. 「天官書」에서는 28宿를 포함한 100여개의 별자리를 五官에 分屬시키고 있는데¹⁷⁾, 북극에 가까운 별은 中官에 포함시켰고, 다음에 28宿를

星張翼軫.”

14) 楊力, 中醫運氣學, 서울, 法仁文化社, 2000, p. 443. 「二十八宿圖」

15) 天官書를 가리켜 『天官書』라고 하여 별자리를 官이라고 한 것은 중국 천문학의 특색인데, 별자리에도 사람의 官職과 같이 尊卑가 있다고 여겨 이를 星官이라 칭하였다.

16) 李文揆, 古代 中國人의 하늘에 대한 天文學의 理解, 理學 博士學位論文, 1997, pp. 47-48.

17) 『詩經』에는 28宿 가운데 8宿가 나타나 있고, 『月令』에도 28宿가 기록되어 있으나, 『史記天官書』에는 27宿(東壁一宿가 없다)로 기록되어 있으며, 『淮南子』에는 모두 28宿가 갖추어져 있다.

東西南北으로 나누어 나머지 四官으로 배속시켰다. 또한 東西南北을 각기 蒼龍, 咸池(혹은 白虎), 朱雀, 玄武로 부르기도 하였다¹⁸⁾.(그림 2)

『史記』「天官書」와 『漢書』「天文志」에서는 “中官은 하늘의 중심이 되는 별자리다. 가장 밝은 것이 변함없이 太一의 자리에 있다.”¹⁹⁾라고 하여 中官을 太一, 즉 北極星과 北斗七星이 있는 가장 중심적인 위치로 설명하였으며, 東, 西, 南, 北의 四官은 中官의 사방에 배속되었다. 東官은 蒼龍이라 하였으며 角亢氐房心尾箕의 항성을 포함하였으며, 房, 心의 二宿는 東官의 가운데에 배속하였다. 南官은 朱雀이라 하였으며 井鬼柳星張翼軫의 항성을 포함하였다. 西官은 咸池 혹은 白虎라 하였으며 奎婁胃昂畢觜參의 항성을 포함하였으며, 北官은 玄武라 하여 斗牛女虛危室壁의 항성을 포함하였다²⁰⁾.

二十八宿는 중국천하의 각 나라, 주, 군에도 대응되는데, 이것을 分野說이라고 한다. 또한 각 별자리에서 별의 모습은 각 분야에서의 인간사의 득실, 길흉, 화복을 드러내기도 하였다²¹⁾.

二十八宿가 이처럼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로 해석되고 연구되어 온 것은, 二十八宿가 현실적으로 지구상의 계절변화와 日月五星의 관측에 있어서 중요

18) 陳遵媯, 中國天文學史 第二冊, 대만, 明文書局, 1993, pp. 65-72.

19) 『漢書·天文志』: “中官天極星, 其一明者, 太一常居也”

20) 陳遵媯, 中國天文學史 第二冊, 대만, 明文書局, 1993, pp. 51-53.)을 참조바람: 二十八宿를 동서남북으로 분류한 것의 특징 중 하나는 네가지 신비스러운 동물로 이를 명칭한 것인데, 이것은 五行說에 따라서 五行의 상을 본뜬 것이다. 이로부터 東官 蒼龍, 南官 朱雀, 西官 白虎, 北官 玄武라 이름지었는데, 二十八宿는 각각 네가지 신비스런 동물의 다른 부위를 상징한다. 東方 蒼龍 7宿인 角亢氐房心尾箕는 각은 용의 머리, 항은 용의 목, 저는 용의 가슴, 방은 용의 배, 심은 용의 심장, 미와 기는 용의 꼬리를 상징한다. 西方 白虎 7宿인 奎婁胃昂畢觜參은 규는 호랑이의 눈, 루와 위는 호랑이의 위장, 묘는 호랑이의 털, 필은 호랑이의 입, 자와 삼은 호랑이의 몸과 꼬리를 상징한다. 南方 朱雀 7宿인 井鬼柳星張翼軫은 정은 새의 머리, 귀는 새의 눈, 류는 새의 입, 성은 새의 목, 장은 새의 모이주머니, 익과 진은 새의 날개를 상징한다. 北方 玄武 7宿인 斗牛女虛危室壁은 두는 거북이의 머리, 우는 뱀의 모양, 여는 거북의 모양, 허와 위는 거북의 몸뚱이, 실과 벽은 각각 ‘女宮’과 ‘天池’로서 거북이가 있는 곳을 상징한다.

21) 李文揆, 古代 中國人의 하늘에 대한 天文學의 理解, 理學 博士學位論文, 1997, pp.54-55.

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二十八宿의 概括

二十八宿²²⁾는 黃道를 중심으로 상당히 넓은 범위에 퍼져 있는 성좌로 되어 있다. 계절은 천구상의 태양의 위치에 따라 정해지므로, 二十八宿는 太陰太陽曆에서 계절을 알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²³⁾.

日月五星의 운행을 관측할 때는 二十八宿의 항성을 배경으로 하였는데, 항성 상호간의 위치가 항구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日月五星의 운행에 따른 위치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二十八宿는 태양이 지나가는 길인 黃道에 위치해 있는데(표 1), 동남쪽에서부터 東方七宿(角, 亢, 氐, 房, 心, 尾, 箕)가 시작되어 북쪽→서쪽→남쪽→동쪽으로 시계반대 방향으로 순환한다²⁴⁾. 계절에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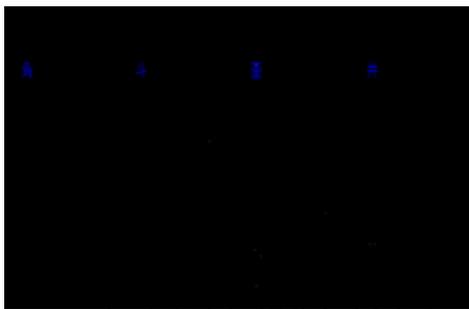


표 1 二十八宿와 현대 천문학의 별자리 비교

라 보이는 二十八宿의 별자리에 대한 기록은 『類經圖翼』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奎璧角軫天地之門戶說」에서 월별로 관측되는 별자리를 기록하고 있다. 『類經圖翼』에 따르면 봄인 3, 4, 5월에는 西方七宿(奎, 婁, 胃, 昴, 畢, 觜, 參)가 나타나고, 여름인 6, 7, 8월에는 南方七宿(井, 鬼, 柳, 星, 張, 翼, 軫)이 보이고, 가을인 9, 10, 11월에는 東方七宿(角, 亢, 氐, 房, 心, 尾, 箕)이 보이고, 겨울인 12, 1, 2월에는 北方七宿(斗, 牛, 女, 虛, 危, 室, 壁)이 보인다고 기록되어 있다²⁵⁾.

二十八宿를 五行에 따라 배속하면 東方七宿가 木에 해당하여 봄에 보이고, 南方七宿가 火에 해당하여 여름에 보이며, 西方七宿가 金에 해당하여 가을에 보이며, 北方七宿가 水에 해당하여 겨울에 보여야 한다. 그러나, 『類經圖翼』에서는 春-西方七宿, 夏-南方七宿, 秋-東方七宿, 冬-北方七宿가 나타난다고 하여, 사계절의 五行속성과 맞지 않게 二十八宿가 관측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二十八宿의 五行配屬이 사계절 중에서 春의 지상의 방위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다른 계절에서는 천체의 二十八宿 방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五行配屬이 맞지 않게 되는 것이다²⁶⁾. 즉, 천구의 방위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절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22) 李殷晟. 曆法の 原理分析. 서울. 정음사. 1985. pp. 202-203.)을 참조바람: 二十八宿의 28이라는 별자리 수효가 무엇을 근거로 정해졌는가는 명확하지 않으나, 달의 운동이나 土星의 공전주기가 연관된다는 설이 있다. 달은 매일 二十八宿 가운데 한자리에 머물고 있으며, 달이 그믐에서 다음 그믐이 되는 주기는 29.53일로써 28이라는 수에 가깝다. 즉, 달은 27.3일을 주기로 하여 黃道를 돌고 있는데, 달이 하루에 하나의 별자리를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28개의 별자리가 나온 것으로 여겨진다. 또 하나의 학설은 토성의 태양에 대한 공전주기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으로, 『史記天官書』에서는 “歲填一宿, 二十八歲周天”이라 하여 토성과 연관지어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토성의 공전주기는 29.5년이므로 정확히 들어맞지는 않는다.

23) 李殷晟. 曆法の 原理分析. 서울. 정음사. 1985. p. 203.)을 참조바람: 二十八宿는 黃道를 같은 각도로 등분한 것은 아니고, 黃道 부근의 특정한 별자리를 기준한 것으로 이를 통해 계절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았다. 『書經堯典』에는 “月中星鳥, 以殷仲春. 日永星火, 以正仲夏. 宵中星虛, 以殷仲秋. 日短星昴, 以正仲冬. 暮三百有六旬有六日, 以潤月, 定四時成歲.”라고 하여 초저녁 남쪽하늘의 별을 관측하고 계절에 따른 閏月을 배치하였다고 하였다. 『書經堯典』의 기록에 따르면 春分날 초저녁에는 鳥라는 별자리(바다뱀자리α, 室에 해당)가 남쪽하늘에 보일 때를 봄의 仲月로 하고, 夏至날 황혼에는 火宿(전갈자리α)가 남중할 때를 여름의 仲月로 하고, 秋分과 冬至에 각각 虛(물병자리β)와 昴(황소자리η)인 별이 남중할 때를 각각 仲秋, 仲冬으로 하였다.

24) 方藥中. 黃帝內經素問 運氣七篇講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p. 60-61.

25) 『類經圖翼』「奎璧角軫天地之門戶說」: “予嘗考周天七政躔度, 則春分二月中, 日躔璧初, 以次而南. 三月入奎婁, 四月入胃昴畢, 五月入觜參, 六月入井鬼, 七月入柳星張, 秋分八月中, 日躔翼末 以交於軫. 循次而北, 九月入角亢, 十月入氐房心, 十一月入尾箕, 十二月入斗牛, 正月入女虛危, 至二月復交於春分以入奎璧矣.”

26) 程七德 主編. 黃帝內經素問注釋匯粹 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p.187-188.

봄에 지상에서 北極星과 반대쪽이 되는 남쪽을 향한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하늘의 二十八宿를 지상의 방위에 따라 五行에 배속시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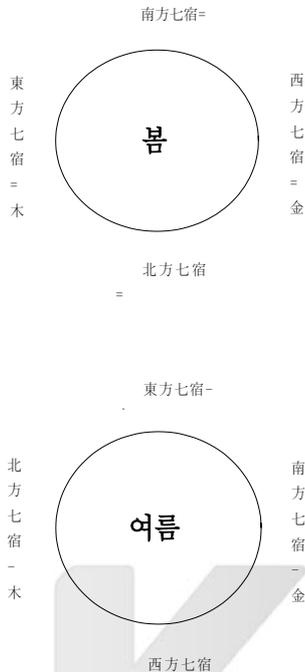


그림 3 계절에 따른 二十八宿의 순환과 五行配屬 비교²⁷⁾

黃道상의 二十八宿는 春夏秋冬의 계절에 따라서 각각 7宿씩 그 모습을 드러낸다. 『靈樞衛氣行』에서는 “天周二十八宿，而一面七星，四七二十八星”이라 하였는데, 이때에 각 7宿에서 나오는 五行의 精氣가 지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二十八宿가 지상에 미치는 영향은 천구의 방위가 아닌 고정적인 지상의 방위를 기준으로 결정짓는데, 이러한 사실은 계절에 따라 보이는 二十八宿의 五行配屬에서 알 수 있다. 봄에는 二十八宿가 東西南北의 방위에 맞게 배속되어 있어서 五行의 방위에 부합된다. 그러나 여름이 되면 천구의 二十八宿의 방위가 회전하기 때문에 관

측되는 별자리가 五行配屬과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즉, 天文은 계절에 따라 변화하고 고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二十八宿의 五行配屬은 봄날 지상의 방위에 따라 결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 『黃帝內經』에 나타난 二十八宿

① 二十八宿와 十干化運

『黃帝內經』에서는 二十八宿를 이용하여 그 해 主運의 五行속성을 결정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十干의 五行配屬은 甲乙木, 丙丁火, 戊己土, 庚辛金, 壬癸水로 배속되나, 五運의 변화는 이와 달리 甲己化土, 乙庚化金, 丙辛化水, 丁壬化木, 戊癸化火의 夫婦五行에 따라 변화한다. 이를 「五運行大論」에서는 “土主甲己 金主乙庚 水主丙辛 木主丁壬 火主戊癸”라고 표현하고 있다.

天干의 五運이 五行상에 있어서 十干의 兄弟配屬과 다른 이유는, 五行이란 오원질의 다섯가지 기본법칙으로 계절, 즉 시간의 동정과 방위나 장소의 고정적인 면을 확정한 것이고, 五運이란 宇宙가 자율운동을 하는 변화현상으로써의 법칙이므로 방위와 같은 고정적인 규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韓東錫은 설명하고 있다²⁸⁾.

十干化運에 관한 내용은 「五運行大論」에 처음으로 나타나는데, 「五運行大論」에서는 “丹天之 기운은 28수 가운데 牛宿, 女宿과 壁宿, 奎宿 사이에서 지나가고, 齡天之 기운은 心宿, 尾宿과 角宿, 軫宿 사이에서 지나가며, 蒼天之 기운은 危宿, 室宿과 柳宿, 鬼宿 사이에서 지나가고, 素天之 기운은 亢宿, 氏宿과 昴宿, 畢宿 사이에서 지나가며, 玄天之 기운은 張宿, 翼宿과 婁宿, 胃宿 사이에서 지나간다고 하였다. 이른바 戊分과 己分이라 한 것은 奎宿, 壁宿과 角宿, 軫宿이니 바로 天地의 門戶이다.”²⁹⁾

28) 韓東錫, 『宇宙變化의 原理』, 서울, 대원출판, 2001, pp.121-122

29) 『素問』「五運行大論」: “臣覽太始天元冊文, 丹天之氣, 經于牛女戊分, 齡天之氣, 經于心尾己分, 蒼天之氣, 經于危室柳鬼, 素天之氣, 經于亢氏昴畢, 玄天之氣, 經于張翼婁胃. 所謂戊己分者, 奎壁角軫, 則天地之門戶也.”

27) 봄에는 계절별로 보이는 東方七宿, 南方七宿, 西方七宿, 北方七宿가 五行의 방위와 일치하지만, 여름, 가을, 겨울로 계절이 바뀌면 천구의 二十八宿가 방향이 90도씩 바뀌게 되므로 五行의 방위와 달라지게 된다.



그림 4 天千化五運圖³⁰⁾

하늘의 기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五運을 나타내는 五天의 기운인데, 五天이란 木기운이 뻗쳐서 나타난 蒼天, 火기운의 丹天, 土기운의 靑天, 金기운의 素天, 水기운의 玄天 등 다섯 기운이 항상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五行의 기운이 강할 때만 나타나서, 그 해의 하늘과 지상의 기운을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五行의 기운은 二十八宿의 별자리를 지날 때 나타나면서, 그 해의 天干에 해당되는 五行屬性을 결정한다.

蒼天의 木기운은 28수 중에서 危, 室, 柳, 鬼의 네 별자리를 지나는데, 이는 24방위에서 丁과 壬에 해당된다. 그래서 五運六氣論으로 볼 때, 丁과 壬이 합해서 木이 된다고 하며, 干支로 丁과 壬으로 시작하는 해는 木의 기운이 주관한다고 한다.

丹天의 火기운은 28수 중에서 牛, 女, 璧, 奎의 네 별자리를 지나는데, 이는 24방위에서 戊와 癸에 해당한다. 그래서 戊와 癸가 합해서 火가 된다고 하며, 干支로 볼 때 戊와 癸로 시작하는 해는 火의 기운이 주관한다고 한다.

靑天의 土기운은 28수 중에서 心, 尾, 角, 軫의 네 별자리를 지나는데, 이는 24방위에서 甲과 己에 해당한다. 그래서 甲과 己가 합해서 土가 된다고 하며, 干支로 볼 때 甲과 己로 시작하는 해는 土의 기운이 주관한다고 한다.

素天의 金기운은 28수 중에서 亢, 氏, 昴, 畢의 네

자리를 지나는데, 이는 24방위에서 乙과 庚에 해당한다. 그래서 乙과 庚이 합해서 金이 된다고 하고, 干支로 볼 때 乙과 庚으로 시작하는 해는 金의 기운이 주관한다고 한다.

玄天의 水기운은 28수 중에서 張, 翼, 婁, 胃의 네 별자리를 지나는데, 이는 24방위에서 丙과 辛에 해당한다. 그래서 丙과 辛이 합해서 水가 된다고 하고, 干支로 볼 때 丙과 辛으로 시작하는 해는 水의 기운이 주관한다고 한다³¹⁾.

② 二十八宿와 衛氣의 循環

『黃帝內經』에서는 衛氣의 循環을 태양이 二十八宿를 운행하는 것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衛氣行」에서는 “한 해에는 12달이 있고 하루에는 12시가 있으니, 子時子月, 午時午月 등은 經에 해당하면서 卯時卯月, 酉時酉月 등은 緯에 해당한다. 하늘에서 태양이 28宿를 주회하는데, 한 면에 별이 7개로 4에 7을 곱하면 28星이니, 房星昴星은 緯에 해당하고 虛星張星은 經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房星에서 畢星까지는 陽에 속하고 昴星에서 心星까지는 陰에 속하니, 陽은 낮을 주관하고 陰은 밤을 주관한다.”³²⁾라고 하여 二十八宿를 설명하고 있다.

태양이 28宿를 지나는데 12時辰이 소요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漏刻法으로 100刻에 해당하며, 그동안 衛氣는 사람의 몸을 50회 循環한다. 하루 동안 사람은 13,500息의 호흡을 하며, 한 호흡에 맥은 0.6尺을 행한다. 이로부터 28脈의 전체 길이를 추산할 수 있는데, $13500 \times 0.6 \div 50 = 162尺 = 16丈 2尺$ 의 수치가 나오게 된다.

「衛氣行」의 설명은 衛氣가 하루 동안에 全身의 經絡을 循環하는 것이 태양이 1년 동안 黃道상에서 二十八宿를 循環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본 것이다. 이것은 太陽이 陽氣에 해당하고 衛氣도 우리 몸의 陽氣에 해당하여, 太陽과 衛氣의 循環을 陽氣의 循環으로 설명한 것이다. 즉, 太陽이 陽氣로써 衛氣와 동일하며,

31) 金秀吉 譯. 天文類抄. 서울. 대유학당. 1998. pp. 12-13.

32) 『靈樞』 「衛氣行」: “歲有十二月, 日有十二辰, 子午爲經, 卯酉爲緯, 天周二十八宿, 而一面七星, 四七二十八星, 房昴爲緯, 虛張爲經. 是故房至畢爲陽, 昴至心爲陰, 陽主晝, 陰主夜.”

30) 楊力. 中醫運氣學. 서울. 法仁文化社. 2000. p. 33. 「天干化五運圖」

二十八宿가 人體의 經絡에 해당한다는 天人相應의 觀點에서 이해한 것이다.

③ 二十八宿와 天門, 地戶

『黃帝內經』에서는 二十八宿 중에서 “이른바 戊分과 己分이라 한 것은 奎宿, 璧宿과 角宿, 軫宿이니 天地의 門戶이다”³³⁾라고 하여 奎璧과 角軫의 별자리를 戊分, 己分 방위의 天門과 地戶라 하여 특히 중시하고 있다.

十天干은 방위상에서 甲乙木은 東에 있고, 丙丁火는 南에 있고, 庚辛金은 西에 있고, 壬癸水는 北에 있고, 戊己土는 중앙에 있어야 한다. 『五運行大論』에서는 戊土를 乾方의 戊位에, 己土를 巽方의 辰位에 배치하고 있다³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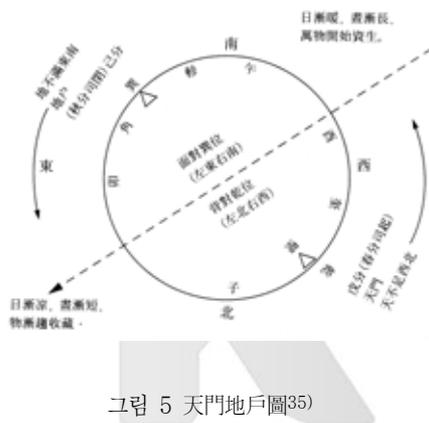


그림 5 天門地戶圖³⁵⁾

『類經圖翼』에서는 天門, 地戶에 대하여 “내가 일찍이 周天七政躔度를 살펴보니 春分인 二月中에는 해가 璧初에 엮혀있고, 다음에는 南으로 가서 三月中에는 奎婁로 들어가고, 四月에는 胃卯畢로 들어가고, 五月에는 觜參으로 들어가고, 六月에는 井鬼로 들어가며, 七月에는 柳星張에 들어간다. 秋分인 八月中에는 해가 翼末과 軫에 함께 엮혀있고 순차적으로 北으

로 간다. 九月에는 角亢에 들어가고, 十月에는 氐房心에 들어가고, 十一月에는 尾箕에 들어가고, 十二月에는 斗牛에 들어가고, 正月에는 女虛危에 들어가며 二月에 이르러는 다시 春分이 되어 奎璧에 들어간다. 이것은 해가 길어지고 계절이 따뜻해지는 것과 만물의 발생함이 모두 奎璧에서 비롯하는 것이고, 해가 짧아지고 계절이 추워지는 것과 만물의 거두어들이고 숨기는 것이 모두 角軫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고로 春分은 여는 것을 맡고 秋分은 닫는 것을 맡는다고 한다. 이 열고 닫는 것을 맡는 것이 門戶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므로, 奎璧으로부터 남쪽으로 해가 陽의 길에 이르는 고로 天門이라 말하고, 角軫으로부터 북쪽으로 해가 陰의 길에 이르는 고로 地戶라 한다. 또 春分은 해가 璧初를 밟는 고로 奎璧이라 말한다. 秋分에는 해가 翼末을 밟으나 翼軫이라 말하지 않고 角軫이라 말한 것은 아마 角以後의 14宿는 합해서 173.25도이고, 奎以後의 14宿는 합해서 192도이니 도수가 가지런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이 秋分이 翼末에 있으나 經에서 角軫이라 말하는 까닭이다. 바로 翼의 度로써 장차 완전히 하면 角軫은 바로 그 슯에 해당한다. 또 奎璧角軫은 對代의 별이다. 奎璧은 西北에서 만나고 角軫은 東南에서 만나니 經에서는 奎璧角軫을 天地의 門戶라고 말했다”³⁶⁾라 하였다.

『類經圖翼』의 내용을 살펴보면, 태양이 春分에 奎璧을 지나면서 지상에 陽氣가 나타나기 시작하므로 奎璧이 天門에 해당하고, 秋分에 角軫을 지나면서 陽氣가 거두어지기 시작하여 角軫은 地戶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天門, 地戶에 해당하는 二十八宿의 별자

33) 『素問』「五運行大論」: “所謂戊己分者, 奎璧角軫, 則天地之門戶也.”

34) 尹暢烈. 干支와 運氣에 關한 研究. 慶熙大學校博士學位論文. pp. 31-32.

35) 楊力. 中醫運氣學. 서울. 法仁文化社. 2000. p.518 「天門地戶圖」

36) 『類經圖翼』「奎璧角軫天地之門戶說」: “予嘗考周天七政躔度, 則春分二月中, 日躔璧初, 以次而南. 三月入奎婁, 四月入胃昴畢, 五月入觜參, 六月入井鬼, 七月入柳星張, 秋分八月中, 日躔翼末, 以交於軫, 循次而北. 九月入角亢, 十月入氐房心, 十一月入尾箕, 十二月入斗牛, 正月入女虛危, 至二月復交於春分以入奎璧矣. 是日之長也, 時之暖也, 萬物之發生也, 皆從奎璧始. 日之短也, 時之寒也, 萬物之收藏也, 皆從角軫始. 故曰, 春分司啓, 秋分司閉. 夫既司開閉要非門戶而何然自奎璧而南日就陽道, 故曰天門. 角軫而北日就陰道, 故曰地戶. 又如春分日躔璧初, 故言奎璧. 秋分日躔翼末, 何以不言翼軫而言角軫. 蓋自角以後十四宿計一百七十三度四分度之一, 自奎以後十四宿計一百九十二度, 度有不齊. 此秋分之所以在翼末, 而經言角軫者, 正以翼度將完而角軫正當其會. 此奎璧角軫爲對代之宿, 而奎璧爲西北之交, 角軫爲東南之交. 故經云奎璧角軫, 天地之門戶也.”

리를 12地支로 살펴보면, 角軫은 辰巳에 해당하며, 奎璧은 戌亥에 배속된다. 『內經』에서는 奎璧과 角軫으로 春分, 秋分을 설정하였는데, 奎璧은 戌亥로 亥는 陰의 極에 해당하여 子에서부터 一陽이 생하기 시작한다. 또한 角軫의 辰巳에서는 巳가 陽의 極에 해당하여 午에서부터 一陰이 생하기 시작한다. 天門은 亥에서 陰極이 되어 陽을 낳기 시작하고, 地戶는 巳에서 陽極이 되어 陰을 낳는 地戶가 된다는 것이다³⁷⁾.

즉, 天門은 陽氣가 성장하기 시작하는 春분에 해당하고, 地戶는 秋分으로 陰氣가 출발하는 시각에 해당하는데, 陽氣가 시작하고 陰氣가 시작하는 출발점을 天門, 地戶라 명칭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 北極星과 北斗七星의 觀測

北極星은 천문학적으로 북극에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는 점 외에도, 『論語』에서 “子曰, 爲政以德 譬如北辰 居其所而衆星共之”³⁸⁾라 한 것과 같이 君主에 비유하여 중요시 하였다. 또한 北斗七星은 지상의 節氣를 교정하고, 사계절과 陰陽, 五行을 나누는 역할을 한다고 여겼다. 『黃帝內經』에서는 北極星과 北斗七星이 天文을 관측하는 기준점이 되며, 또한 기후의 변화와 질병의 전변도 이를 통해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1) 北極星과 北斗七星의 天文學的 意義

① 北極星의 天文學的 意義

北極星은 天文에서 움직이지 않는 자리로, 極의 의미는 움직임을 중점, 즉 삼라만상이 다 움직이는데 그 중에서 움직이지 않는 점을 말한다. 北極星을 『黃帝內經』에서는 ‘太一’이라 하였는데, 『靈樞九宮八風』과 『靈樞歲露論』에 北極星을 이용하여 질병의 전변과 예방에 이용하고 있다. 『黃帝內經』에서 본 北極星은 용자리의 알파성인 튜반을 北極星이라 하였다. 현재는 작은곰자리의 폴라리스가 北極星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북극보다 1도 정도 기울어진 것이다.

12,000년 후에는 직녀별인 베가가 北極星이 되며, 26,000년 후에는 다시 폴라리스가 北極星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것은 지구의 세차운동과 北極星 자체의 회전운동으로 인한 것이다³⁹⁾.

太一은 太乙이라고도 하는데, 『易緯·乾鑿圖』에는 “太乙取其數以行九宮”이라 하여, 太乙이 하늘의 귀중한 신인 北極星이며 九宮을 순행하여 ‘太乙行九宮法’의 術數學에 사용되었다.

고대에는 천상을 관측할 때 北極星(太一 혹은 太乙)을 방향을 정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北極星은 북방에 위치하므로 마주보는 쪽은 남방이고 좌측은 동방, 우측은 서방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九宮圖는 北極星을 중심으로 삼았다. 『官規輯要』에서는 “北極星을 비록 中宮이라 명명하였으나, 실제로는 子位(북방)에 위치하고 午位(남방)와 마주보고 있다.”라 하였다. 中宮은 北斗七星이 北極星을 둘러싸고 돌기 때문에 방향을 측정하는 지표가 된다. 斗柄이 돌면서 가리키는 八宮方位에 근거하면 節氣의 변화 및 八方의 기상변화를 추측할 수 있는데, “斗柄이 동쪽을 가리키면 천하는 모두 봄이다.”라는 구절이 이에 근거한 것이다. 즉 北極星은 방향을 정하는 기준이고, 北斗七星은 節氣와 방향을 가리키는 기준이 된다⁴⁰⁾.

② 北斗七星의 天文學的 意義

고대에는 天帝가 타고 다니는 수레를 北斗七星이라고 하였으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四時를 결정하였다. 즉, 北斗七星의 魁와 杓가 어디를 향하는 지가 時間이요, 月令을 나타내게 된다. 北斗七星은 五行星의 궤도를 바로 잡는다고 생각해서, 璇璣玉衡이라고도 불렀는데 北斗七星의 극자 부분이 璇璣, 자루부분이 玉衡을 말한다. 北斗七星의 일곱별은 각각 貪狼星, 巨門星, 祿存星, 文曲星, 廉貞星, 武曲星, 破軍星이라 부르면서, 이들이 사람 목숨의 길고 짧음과 길하고 흉한 운세를 쥐고 있다고 여겼다. 北斗七星은 天樞, 天璇, 天璣, 天權, 玉衡, 開陽,

37) 方藥中, 黃帝內經素問 運氣七篇講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61

38) 『論語』, 四書章句集注, 서울, 明文堂, 1992, 「爲政」

39) 조셉니덤 著, 이면우 譯, 中國의 科學과 文明, 서울, 까치글방, 2000, pp.134-135

40) 郭東烈, 醫易啓悟, 서울, 成輔社, 1997, pp.129-130

직이는 것으로 질병의 발생과 기후를 예측하였다. 「九宮八風」의 내용은 九宮八卦를 八方에 배속시키고 方位와 節氣, 時間과 空間을 종합하여 기후와 질병의 전변을 예측한 것으로 중앙 一宮의 北極星이 중심이 된다. 太一, 즉 北極星이 시간에 따라 각 宮을 움직이는 것을 太一遊宮이라 하는데, 실제로는 北極星의 주위를 北斗七星이 돌면서 가리키는 방향으로 節氣를 정하게 된다.

「九宮八風」에서는 北極星과 北斗七星을 위주로 하여 절기와 기후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九宮八風은 日月의 운동 및 北斗七星과 다른 별들의 움직임을 모두 관찰하고 있으며, 1년을 8개의 단계로 구분하여 方位, 節氣, 氣候의 변화를 자세하게 예측하고자 하였다⁴⁸⁾.

「歲露論」에서는 “이를 관찰할 때 항상 동짓날에는 北極星이 정북방의 坎宮에 서는데, 그 시기에 이를 때 날씨가 반드시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는 것으로써 이에 호응한다. 정월 초하루에는 北極星이 동북방의 艮宮에 머물러 있는데, 그 날에 서북풍이 불고 비가 오지 않으면 사람이 많이 죽는다.”⁴⁹⁾라고 하였다.

歲露는 歲時不正之氣 즉 四時에 발생하는 虛邪를 가리키는 말인데, 四時氣候에 걸맞지 않은 바람이 불면 질병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歲露論」에서는 동짓날에 北極星의 위치, 정월 초하루에 北極星의 위치, 정월 초하루에 바람의 방향 등으로 한 해의 질병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⁵⁰⁾.

동양 천문학에서는 北極星과 北斗七星 등의 천문 관측을 점성술적인 면으로 이용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은 『晉書』 「天文志」와 『史記』 「天官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黃帝內經』에서도 天文을 점성술적인 면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東洋天文學과 구별되는 점은 이러한 면을 기후변화와 연관시켜 질병의 전변을 예측하고

자 한데에 있다. 「九宮八風」과 「歲露論」에서는 北極星이 八卦의 여덟 방위를 畷아감에 따라서, 기후변화가 나타나며 이것이 질병으로 연관된다고 하였다. 『黃帝內經』의 「九宮八風」은 『易緯乾鑿圖』에 나타난 太乙九宮占卜法의 점성술적인 측면을 반영하고 있으며⁵¹⁾, 또한 八卦와 九宮을 결합하여 八風의 기후변화를 北極星과 北斗七星의 운행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기상학적인 면도 포함하고 있다.

八卦方位說에 의하면, 八卦가 12節氣에 배당되는데, 坎離震兌는 4正卦가 되고 乾坤巽艮은 4維卦가 되어 각각 자기의 방위를 맡아 四時의 변화를 주재함으로써 일년 사계절의 陰陽消長과정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九宮說은 陰陽二氣의 운행으로 八卦와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太一이 1에서 9까지 음양의 수의 次序에 따라 九宮 속을 운행한다는 설이다. 九宮은 四正과 四維에 中宮을 합한 것으로, 北極星인 太一이 九宮 즉, 八卦의 방위 속에서 운행한다고 설명하였다⁵²⁾. 즉, 九宮八風은 八卦가 주관하는 절기의 변화가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北極星의 八卦方位로 기후, 기상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北極星이 八卦로 표현되는 방위에 따라서 기후변화가 나타난다는 사실은 방위와 기후변화를 연관시킨 것이지만, 北極星의 위치로 기상과 질병을 예측한 것은 실제로 확인하기 힘든 부분이다.

방위와 기후의 변화를 연관시킨 면은 北斗七星을 이용한 月建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月建法이란 北斗七星이 가리키는 방향을 이용해서 계절이나 방위 등을 정하는 방법인데 즉, 冬至에는 斗柄이 북쪽의 子방향을 가리키고, 春分에는 동쪽의 卯방향을, 夏至에는 남쪽의 午방향을, 秋分에는 서쪽의 酉방향을 가리키는 것을 말한다. 北斗七星이 가리키는 방위와 춘하추동의 절기가 연관된다는 점은 天文의 방위와 기후, 기상의 변화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宮의 이름 등의 여러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다.

48) 丁彰炫, 黃帝內經중의 時空模型에 대한 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2. 15(1). pp. 299-301.

49) 『靈樞』 「歲露論」: “候此者, 常以冬至之日, 太一立於叶蟄之宮, 其至也, 天必應之以風雨者矣.... 正月朔日, 太一居天留之宮, 其日西北風不雨, 人多死矣.”

50) 高成豪, 李南九, 靈樞歲露論에 관한 研究, 大韓原典醫學學會誌, 2002. 15(2). p. 170-171.

51) 尹暢烈, 九宮八風에 대한 研究, 尹暢烈, 醫哲學, 大田, 大田大學校 原典醫學史學教室, 1998. pp.430-431.)를 참조바람: 1977년 安徽省 阜陽縣의 汝陰侯墓에서 출토된 ‘太一九宮占盤’은 八卦의 위치와 五行속성에 근거하여 배열되어 있는데, 九宮의 명칭과 각 宮의 日數가 『黃帝內經』의 「九宮八風」과 일치하고 있다.

52) 朴贊國, 黃帝內經素問注釋, 서울, 集文堂, 2005. p.160

다. 이러한 측면에서, 「九宮八風」과 「歲露論」에서 北極星의 八卦에 따른 방위와 기후, 질병의 변화를 연관시킨 면도 보다 연구가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된다.

4) 五星의 觀測과 解釋

五星은 五行의 정기를 통해 지상에 영향을 주며, 주기적으로 천체를 순환하고 있다. 동양 천문학에서는 五星이 五行을 나타내며 주기적으로 순환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정밀하게 관측하였으며, 五星이 지상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이를 점성술적인 면으로도 이용하고자 하였다. 『周易』에서도 天象을 통해 吉凶을 알 수 있다고 하였는데⁵³⁾, 天文의 점성술적인 면은 28宿에서도 나타나 있다.

『黃帝內經』에서도 五星의 점성술적인 면을 찾아볼 수 있는데, 보다 중요한 사실은 「氣交變大論」에 나타난 것과 같이 한해의 오행속성을五星의 변화를 통해서도 예측할 수 있다고 한 점이다. 五運의 변화는 그 해의 오행기운이 28宿의 별자리 사이를 지나가면서 나타내는데, 「氣交變大論」에서는 五星의 변화를 통해서도 大運의 太過, 不及을 예측할 수 있다는 천문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일정한 주기로 공전하는 목성과 토성의 별들은 12地支와 28宿의 성립과 관련된다고 여겨지고 있으며, 특히 목성은 歲星紀年法으로 한 해를 紀年하는데 사용되기도 하였다.

(1) 五星의 概括

五星은 歲星, 熒惑星, 鎮星, 太白星, 辰星을 말한다. 歲星은 목성에 해당하는데, 고대에는 歲星이 12년에 하늘을 일주하고 매년의 순행에는 하나의 특정한 구역을 지나간다고 보아, 이것을 근거로 紀年하였다. 辰星은 수성에 해당하고, 熒惑은 화성에, 鎮星은 토성에 해당한다. 五星은 목화토금수의 五行을 상징하는데, 五星의 운행과 색, 궤도, 원근 등의 변화는 각각 지구상의 기후, 질병, 정치 등의 변화를 일으킨다고 생각하였다⁵⁴⁾.

53) 『周易』 「繫辭上」: “是故天生神物, 聖人則之. 天地變化, 聖人效之. 天垂象見吉凶, 聖人象之. 河出圖, 洛出書, 聖人則之.”

54) 陳遵媯, 中國天文學史 第二策. 대만. 明文書局. 1993. pp. 5-6.

五星 중에서 일정한 공전주기를 갖고 있는 별들은 동양천문학에서 특정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여겨졌다. 예컨대, 목성의 공전주기는 약 12년이다. 따라서 해마다 1次씩 西에서 東으로 이동하게 되므로, 예로부터 이것을 歲星이라 부르게 되었다. 고대에는 歲星이 보이는 곳을 기준으로 하여 천구의 赤道를 12구역으로 나누었는데, 이것을 12次⁵⁵⁾라 하며 十二地支를 붙이면 해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歲次라고도 하였다. 歲星의 항성주기⁵⁶⁾는 11.86년으로서 ‘12次’와 연관되어, 五星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로 여겨졌다. 歲星의 항성주기인 12년⁵⁷⁾을 ‘一紀’라고 하는데, 一紀 가운데 매 해에는 攝提格 등과 같은 명칭이 있었다. 歲星은 木에 속하여 五行相生의 시작을 의미하는데, 이 밖에 12次의 시작이란 의미로 紀星이라고도 불리어졌다⁵⁸⁾.

「歲星紀年法」

고대에는 태양이 지나가는 길인 黃道 부근의 하늘을 12등분하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星紀, 玄枵 등 12차를 명명하였는데, 歲星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12년 동안에 하늘을 한 번 일주하므로 매년 운행에 하나의 성차를 지나간다고 보았던 것이다. 가령 어느 해의 歲星이 운행하여 星紀의 범위에 이르면 ‘歲在星紀’라고 하였으며, 그 나머지도 이와 같아서 12년이 되면 일주하고 다시 새로 시작하였다⁵⁹⁾.

「太歲紀年法」

고대에는 12次 외에 ‘12辰’이라는 개념이 있었는

55) 1년 동안 태양과 달은 12번 만나는데, 이를 12次라고 하며 이로부터 12地支가 나왔다는 학설도 있다. 12地支는 태양과 달의 會合週期 외에도 木星이 12년을 주기로 하늘을 一周天하고, 北斗七星이 1년에 12번 변화한다는 것과 연관된다. 十二辰이 바로 十二支를 뜻하는데, 1개월에 있어서는 月建에 해당하고, 하루에 있어서는 12時에 해당한다.

56) 恒星週期는 행성이 항성을 기준으로 하여 궤도상에서 태양을 돌아 공전하는 기간을 말한다. 歲星의 항성주기가 11.86년인 것은 12지와 관계가 있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57) 歲星은 12년에 하늘을 일주하는 것이 아니라 11.8622년에 하늘을 일주하게 된다. 따라서 歲星의 매년 이동하는 범위는 하나의 星次보다 약간 많아서 86년이 되면 하나의 星次를 초과하게 되는데, 이를 ‘超辰’이라 하였다.

58) 陳遵媯, 中國天文學史 第二策. 대만. 明文書局. 1993. pp. 167-168.

59) 陳遵媯, 中國天文學史 第二策, 대만, 明文書局, 1993, pp. 174-175

데, 12辰은 黃道부근의 하늘을 12등분한 것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향하여 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의 12支에 짝을 맞춘 것으로, 방향과 순서가 12次와 정반대가 된다.

歲星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운행하므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12辰의 방향 순서와는 상반되어 歲星紀年法을 실제 생활 속에 응용하자면 많은 불편이 따랐다. 이 때문에 고대의 천문가들은 하나의 가짜 歲星을 만들어 ‘太歲’ 혹은 ‘歲陰’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실제의 歲星과는 정반대로 순환하면서 12辰의 방향 순서와 일치시키고 이것으로 紀年을 하였다⁶⁰⁾.



그림 9 十二次와 十二辰⁶¹⁾

(2) 『黃帝內經』에 나타난 五星의 觀測과 解釋

『黃帝內經』에서는, 五星의 色과 高度, 遠近, 軌道의 이탈여부를 관찰하여, 이의 太過, 不及으로吉凶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天文의 밝기와 고도, 색과 운행궤도와 이로 인한 太過, 不及은 인체의 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였다.

『黃帝內經』에서 五星을 관찰한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五星의 運行軌道와 速度, 方向, 光度등의 변화를 중시하였고, 또한 德, 化, 政, 令, 災, 變 등의 점성

술적인 측면과 연관되어 있다. 五運의 太過, 不及은 천체의 五行星의 운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五星의 운행에 따라 기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즉, 五星의 변화를 통해서 五運六氣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德化政令災變⁶²⁾ 등의 기후변화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五星의 관측방법에 대하여 『氣交變大論』에서는 五星의 速度, 方位, 軌道, 光度 등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五星이 운행하는 궤도에서 順行하되 오랫동안 머물러 지체하거나 逆行하되 나아가지 않으면서 광채가 약해지는 것을 省下(아랫사람들의 과오를 성찰해야 함)라 하고, 운행하는 궤도에서 順行하면서 나아가되 나아갔다 되돌아오는 것이 신속하거나 우회하여 지나가는 것을 省遺過(남겨진 과실을 성찰해야 함)라 하며, 오랫동안 머물러 지체하다가 되돌아오거나 어떤 경우에는 이탈했다가 어떤 경우에는 접근하는 것을 ‘災害와 德을 의논해야 한다.’⁶³⁾라 하였다.

道는 五星이 운행하는 궤도를 말하며, 小는 五星의 광도가 약해지는 것을 말한다. 五星의 변화로 궤도위에서 머뭇거리거나 逆行하고 광도가 약해지는 상황이 되면 지상의 기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五星과 지구의 거리에 대하여 지면에 가깝게 접근하면 변화가 작고 거리가 멀면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접근하면서 빛이 약해지는 것으로 징험하거나 강해지는 것으로 징험해야 하는데, 五星이 빛나면서 강해져 정상보다 1배 밝으면 그 변화가 심해지고, 정상보다 2배 강해지면 그 재해가 닥쳐온다. 정상보다 1배 약해지면 그 변화가 감소하고, 정상보다 2배 약해지는 것을 ‘臨視’라 하여 아랫사람들의 과오와 그 덕행을 성찰해야 하니, 덕행이 있을 경우에는 복을 내릴 것이고 과오가 있을 경우에는 벌을 내릴 것이다.”⁶⁴⁾

60) 陳遵媿, 中國天文學史 第二策, 대만, 明文書局, 1993, p. 171

61) 雷順群 主編, 內經多學科研究, 北京,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90, p.229

62) 德化政令은 기후의 정상상황을 말하고, 災變은 기후의 이상변화를 말한다. 王冰은 “德化政令은 和平安氣이다. 이러한 氣의 動靜, 勝復이 만물에 배풀어 모두 相生하게 한다. 變과 災는 殺氣이다. 갑자기 나타나고 빠르게 변하여 손상시킨다.”고 하였다.

63) 『素問』「氣交變大論」: “以道留久, 逆守而小, 是謂省下. 以道而去, 去而速來, 曲而過之, 是謂省遺過也. 久留而環, 或離或附, 是謂議災與其德也. 應近則小, 應遠則大.”

64) 『素問』「氣交變大論」: “應近則小, 應遠則大, 芒而大, 倍常

밝은 五星의 光度를 말하며, 광도가 1배 늘어나면 氣化作用에 이상이 나타나며, 두배 더 밝아지면 재생(災眚)이 늘어난다. 광도가 1배 더 어두우면 氣化作用이 감소하며, 두배 더 어두워지면 기후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해야 한다.

“이 때문에 징조가 나타날 때 높으면서 멀면 희미해지고 낮으면서 가까우면 뚜렷해지니, 그러므로 뚜렷해지면喜怒가 가까워지고 희미해지면禍福이 멀어진다.”⁶⁵⁾

五星을 관찰하여 五星의 위치가 높고 멀면 지상에 미치는 영향이 작고, 낮고 가까우면 영향이 크게 된다.

“그 해의 五運이 태과하면 五運에 배속되는 五星은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나 북쪽으로 운행하고, 五運의 기운이 서로 맞았으면 각기 운행하는 궤도에서 順行한다. 그러므로 그 해의 五運이 太過하면 자신이 극하는 畏星은 빛을 잃으면서 그 母星의 색을 겸하고, 不及하면 자신을 克하는 별의 색을 겸한다.”⁶⁶⁾

歲運이 태과하면 主運과 상응하는 별이 북쪽으로 치우쳐 이동한다. 平氣, 歲會와 같이 歲運과 氣가 相得하면 五星이 각기 자신의 궤도를 따라 운행한다. 歲運이 太過하면 畏星(자신이 이기는 별)의 색이 어두워지면서 五星의 母色을 겸하고, 不及하면 자신이 이기지 못하는 별의 색을 겸한다. 즉, 運氣의 太過, 不及은 五星의 운행에 따라 나타나며, 五星의 색도 運氣의 生克관계를 나타냄을 설명하고 있다.

『黃帝內經』에서 五星을 관측한 기록을 살펴보면 당시의 천문학에 대한 몇가지 중요한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黃帝內經』에서는 五星의 色과 高度, 遠近, 軌道 등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⁶⁷⁾, 이를 통해

之一, 其化甚, 大常之二, 其眚即也, 小常之一, 其化減, 小常之二, 是謂臨視, 省下之過與其德也, 德者福之, 過者伐之.”

65) 『素問』「氣交變大論」: “是以象之見也, 高而遠則小, 下而近則大, 故大則喜怒遷, 小則禍福遠”

66) 『素問』「氣交變大論」: “歲運太過, 則運星北越. 運氣相得, 則各行以道, 故歲運太過, 畏星失色, 而兼其母, 不及則色兼其所不勝.”

67) 『黃帝內經』에서는 五星의 順行, 逆行, 머무르는 현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대천문학에서 검증된 사실이다. 모든 행성은 천구의 黃道부근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운행하는데, 이것을 順行이라고 한다. 그러나, 잠시동안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데, 이것을 逆行이라고 한다. 또한 행성이 順行과 逆行, 逆行과 順行으로 바뀔 때 잠시 머무를

당시의 천문 관측이 매우 정밀했음을 알 수 있다⁶⁸⁾.

『黃帝內經』에서는 五星의 변화에 德化政令災變 등의 점성술적인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또한 運氣의 太過, 不及 등을 五星의 궤도와 광도를 관측하여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天文을 점성술적인 면으로 이용한 것은 고대로부터 있었던 일인데, 五行星을 이용한 점성술도 28宿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행성을 그것이 상징하는 역할과 대응시켜서 설명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⁶⁹⁾.

五星으로 運氣의 太過, 不及을 설명한 사실을 보면, “그 해의 五運이 太過하면 五運에 배속되는 五星은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나 북쪽으로 운행하고... 그러므로 그 해의 五運이 太過하면 자신이 克하는 畏星은 빛을 잃으면서 그 母星의 색을 겸하고, 不及하면 자신을 克하는 별의 색을 겸한다.”⁷⁰⁾라고 하였는데, 五星을 五行과 동일하게 여겨서 五星의 운행에 따라서 運氣의 太過, 不及을 예측했음을 알 수 있다. 『五運行大論』에 따르면 五運의 변화는 그 해의 五行에 해당하는 기운이 28宿의 별자리 사이를 지나가면서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氣交變大論』에서는 五星의 변화를 통해서도 大運의 太過, 不及을 예측할 수 있다는 천문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당시의 천문관측이 정밀하게 행해졌음을 알 수 있으나, 실제로 運氣의 太過, 不及이 五星의 변화로 예측할 수 있는지는 보다 연구가 필요한 부분

수 있는데, 이것을 留라 한다.

68)李文揆. 古代 中國人의 하늘에 대한 天文學의 理解. 서울대학교 理學博士學位論文. 1997. p. 79.)를 참조바람: 『史記』「天官書」, 『淮南子』「天文訓」에서는 五星에 대한 運행을 자세히 묘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서 각 행성의 運행주기나 속도, 順行과 逆行을 반복하는 運行방법, 입출입 시간과 방위 등을 알 수 있으며, 『五星占』에서는 구체적으로 秦始皇 元年(기원전 246)에서 漢初까지의 약 70년에 걸쳐 歲星, 填星, 太白의 위치를 28宿를 이용하여 보여 주는 표가 들어있기도 하다.

69) 恒星의 명칭이 지상의 관료체계에 들어맞는 것에 비해 行星은 五行과 연관지어 설명한다. 五行의 運行을 통해 王朝의 運命을 설명한 것도 이와 連관된다. 즉, 하늘에는 統치조직을 상징하는 北極星, 北斗七星, 28宿의 行星이 있으며, 그 사이를 五行에 해당하는 五星이 運行하면서 그들의 運命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70) 『素問』「五運行大論」: “歲運太過, 則運星北越...故歲運太過, 畏星失色, 而兼其母, 不及則色兼其所不勝.”

으로 사료된다.

2. 天文曆法の 醫學的 運用에 대한 研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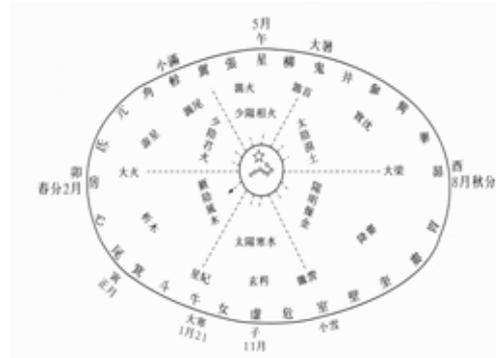
1) 天文學的 觀點에서 본 運氣學

運氣學은 五運과 六氣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宇宙가 인간에 미치는 여러 가지 다양한 氣의 흐름을 예측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여, 인간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학문 분야라고 규정할 수 있다⁷¹⁾.

運氣學에서는 자연계의 기후변화가 五運과 六氣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는데, 五運은 하늘의 다섯가지 기운을 말하고 六氣는 땅의 여섯가지 기운을 말한다. 五運은 하늘의 기운으로 木火土金水의 五行이 쉽게 순환하기 때문에 ‘運’이라 하는데, 十天干으로 이를 나타낸다. 六氣는 땅의 기운으로 風寒暑濕燥火의 여섯가지 기운을 말하며, 十二地支로 이를 나타낸다.

五行이 지구 위의 하늘에서 순환할 때는 五運이 되지만, 五行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와 작용할 때는 六氣가 된다. 五運의 운동이 지구로 내려올 때 지구의 자전축이 경사되어 있어서 寅申相火라는 새로운 기운이 더해져서 六氣가 생겨나는 것이다⁷²⁾.

하늘의 五運과 땅의 六氣가 상호작용할 때 기후와 기운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天干과 地支로 五運과 六氣의 결합을推算하여 이러한 변화를 예측하고자 하는 것이다. 運氣學에서는 干支로 나타난 運과 氣의 관계를 추산하여 연역적인 계산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天文氣象學的인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⁷³⁾. 運氣學은 실제로 天文의 변화를 바탕으로 나타나는 氣의 흐름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運氣學의 천문학적 배경을 이해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0] 五運六氣 天文背景圖⁷⁴⁾

(1) 五運의 天文學的 考察

運氣學은 五運과 六氣로 나타나는 하늘과 땅의 상호작용을 시간에 따라 그 변화상을 설명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五運은 지구 위에서 五行星이 순환하면서 나타나는 宇宙의 氣의 흐름을 표현하며, 五行法則에 따르는 春夏秋冬의 변화로 드러난다.

五運이 五行과 다른 점은 五行이 변화하지 않는 사물 내부의 자연법칙을 말한 것이라면, 五運은 五行의 자연법칙이 변화하는 宇宙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설명한 것이다⁷⁵⁾.

五運은 지상에서 春夏秋冬의 계절의 변화를 주관하는데, 運氣學에서는 四時變化의 흐름을 大運과 主運, 客運으로 예측하고자 하였다. 大運은 일년 동안에 宇宙 전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오행 속성을 말하며, 主運은 일년 동안에 고정된 春夏秋冬의 오행속성이 번갈아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大運은 宇宙 안에서 五行이 순환하면서 나타나므로 甲己土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비하여, 主運은 지상에서 고정되어 변화하지 않으므로 五行의 법칙을 따라 木火土金水의 순으로 相生한다. 客運은 사계절 안에서의 특수한 기후 변화를 말한 것으로, 大運과 主運의 편차를 설명하기 위한 보조적인 개념으로 사용된다⁷⁶⁾.

71) 白裕相. 內經 運氣篇의 氣味運用에 대한 研究. 慶熙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2. p. 1.

72) 韓東錫. 宇宙變化의 原理. 서울. 대원출판. 2001. pp. 146-147.

73) 白裕相. 內經 運氣篇의 標本中概念에 대한 研究. 慶熙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8. p.5.

74) 楊力. 中醫運氣學. 서울. 法仁文化社. 2000. p.451.

75) 尹暢烈. 干支와 運氣에 關한 研究. 慶熙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87. p. 29.

76) 白裕相. 內經 運氣篇의 標本中概念에 대한 研究. 慶熙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8. p.17-18

五運은 天干으로 표현하는데, 天干이 열가지인 것은 五行이 외부로 드러날 때는 陰陽의 편차를 가지기 때문이다. 五行이 甲乙木으로 동방에 배속되는데 대하여, 五運은 방위에 고정되지 않고 각각의 天干이 합하여 새로운 오행속성을 가지는데 예컨대, 甲己合土와 같이 甲木과 己土가 합하여 土의 오행속성을 가지는 것이다.

이를 十干化運이라 하는데, 五運의 十干化運에 관한 내용은 「五運行大論」에 나타나 있다. 「五運行大論」에서는 “臣覽太始天元冊文, 丹天之氣, 經于牛女戌分, 齡天之氣, 經于心尾己分, 蒼天之氣, 經于危室柳鬼, 素天之氣, 經于亢氏昂畢, 玄天之氣, 經于張翼婁胃.”라고 하여 丹天의 기운은 하늘의 28宿 가운데 牛宿, 女宿과 壁宿, 奎宿 사이에서 지나갈 때 十干에 있어서는 戊癸의 방위에 해당하여 戊癸가 火로 化한다고 하였다.

즉 五運의 十干化運은 천체상에 있는 二十八宿의 방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⁷⁷⁾.

主運은 木火土金水의 五行相生 순으로 1년을 73日 5刻씩 다섯으로 나누어 지배한다. 主運은 大寒日에서 시작하지만, 시작되는 時刻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를 主運의 交司時刻이라 한다. 「六微旨大論」에서는 “해가 黃道를 한바퀴 일주할 때(甲子年) 천기의 초기는 일각에 시작하고, 해가 두바퀴 일주할 때(乙丑年) 26각에 시작하며, 세바퀴 일주할 때(丙寅年) 51각에 시작하고, 해가 네바퀴(丁卯年) 일주할 때 76각에 시작하며, 다섯바퀴 일주할 때(戊辰年) 천기의 초기는 일각에 다시 시작하니, 이른바 一紀라 한 것이다.”⁷⁸⁾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日行一周는 태양이 黃道를 한바퀴 순환하는 일년을 말한다. 辰申子년에는 主運이 大寒日의 一刻에서 시작되며, 이에 따라 六氣의 시작도 大寒日 一刻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主運의 시작시간은 4년을 주기로 동일하게 시작되는

데, 辰申子년에는 一刻에서, 巳酉丑년에는 26刻에서, 寅午戌년에는 51刻에서, 卯未亥년에는 76刻에서 시작된다. 4년마다 순환하는 申子辰, 巳酉丑, 寅午戌, 亥卯未의 해는 六氣의 시작시각이 서로 동일하며, 또한 서로 합하여 새로운 五行屬性을 가지게 된다⁷⁹⁾(80).

고대에는 시간을 漏刻法으로 계산하였는데, 태양이 하루 동안에 0도부터 360도까지 지구주위를 일회 전하는 시각을 100刻으로 나눈 것이다⁸¹⁾. 主運의 交司時刻은 4년을 주기로 하여 시작시각이 달라지는데, 매년 大寒日에 主運은 시작되지만 申子辰, 巳酉丑, 寅午戌, 亥卯未년 마다 25刻씩 늦어지는 순환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매 25刻씩 늦어지는 것은 漏刻法에 따르면 태양이 지구를 순환하는 방위가 90도씩 동서남북으로 달라짐을 말한다. 또한 申子辰, 巳酉丑, 寅午戌, 亥卯未는 三合法에서 각각 水, 金, 火, 木의 오행속성을 갖는데, 五行이 방위와 연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主運의 交司時刻은 태양이 지구주위를 회전하는 방위와 연관될 것으로 여겨진다.

(2) 六氣의 天文學的 考察

六氣는 五運의 五行運動이 땅에서 작용할 때 나타나는 氣의 변화를 나타내며, 主氣와 客氣로 구분된다. 五運이 오행법칙으로 나타내는데 비하여, 六氣는 三陰三陽과 風寒暑濕燥火의 六氣로 표현된다. 六氣는 主氣와 客氣로 나뉘는데, 主氣는 매년 동일한 五行의 기운을 나타낸다. 主氣는 매년 일정하게 땅의

79) 尹暢烈. 干支와 運氣에 關한 研究. 慶熙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87. pp. 44-46.

80) 4년을 주기로 하여 申子辰, 巳酉丑, 寅午戌, 亥卯未년의 主運의 시작시간이 동일함에 근거하여, 「陰陽法」에서는 이를 “三合”이라 하는데 申子辰은 합하여 水가 되고, 巳酉丑은 합하여 金이 되며, 寅午戌은 합하여 火가 되며, 亥卯未는 합하여 木이 된다고 설명한다. 三合에 대하여『類經圖翼』에서는 “六十年氣數周流, 皆如前之四年. 故四年之後. 氣復如初. 所以寅午戌爲會同, 卯未亥爲會同, 辰申子爲會同, 巳酉丑爲會同. 今陰陽家, 但知此爲三合類局, 而不知由於氣數之會同如此.”라 하여 4년마다 主運의 度數가 다시 初刻에서 시작하여 寅午戌, 亥卯未, 申子辰, 巳酉丑이 합하여 모이는데, 陰陽家에서는 이것이 합함을 알지만 三合이 氣數의 會同, 즉 五運의 交司時刻에서 나왔음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81) 24시간을 漏刻法으로 정확하게 계산하면 100刻 6분이 된다. 漏刻法에 대한 기록은 『類經圖翼』「氣數統論」 p.30과 黃帝內經素問 運氣七篇講解 p.101을 참조바람.

77) 尹暢烈. 干支와 運氣에 關한 研究. 慶熙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87. pp. 30-31.

78) 『素問』「六微旨大論」: “日行一周, 天氣始於一刻, 日行再周, 天氣始於二十六刻, 日行三周, 天氣始於五十一刻, 日行四周, 天氣始於七十六刻, 日行五周, 天氣始於一刻, 所謂‘一紀’也. 是故寅午戌, 歲氣會同, 卯未亥, 歲氣會同, 辰申子, 歲氣會同, 巳酉丑, 歲氣會同, 終而復始.”

오행법칙을 따르므로 地氣라 하는데, 『類經圖翼』에서는 이를 “主氣者, 地氣也. 在地成形, 靜而守位, 爲木火土金水. 分主四時而司地化, 以爲春夏秋冬.”이라 하였다. 반면에 客氣는 해마다 陽氣의 多少에 의한 三陰三陽의 순서에 의해 변화하는데, 『類經圖翼』에서는 이를 “客氣者, 天氣也. 在天爲氣, 動而不息, 乃爲天之陰陽.”라고 하였다⁸²⁾.

五運은 하늘의 기운을 나타내므로 主運과 客運이 모두 五行의 법칙을 따르지만, 六氣는 五運이 지상에 내려와 변화할 때의 氣의 흐름을 나타내므로 땅의 오행법칙을 위주로 하는 主氣와 하늘의 음양변화를 따르는 客氣로 구분되는 것이다.

客氣의 次序는 먼저 三之氣인 司天之氣를 정한 연후에, 司天之氣와 상대되는 자리에 있는 在泉之氣를 정하게 된다. 司天之氣와 在泉之氣는 上半年과 後半年을 주관하는데, 『六元政紀大論』에서는 “歲半之前, 天氣主之. 歲半之後, 地氣主之.”라고 하여 司天을 하늘의 기운으로 보고, 在泉을 땅의 기운으로 보았다⁸³⁾.

客氣를 天氣라 할 때, 天氣는 태양에너지에 의한 陰陽氣의 多少에 의해 좌우된다. 二十四節氣 상에서 司天之氣는 夏至에 해당하고, 在泉之氣는 冬至에 해당한다. 즉, 司天之氣는 天氣의 영향이 가장 강한 夏至에 해당하고, 在泉之氣는 天氣의 영향이 가장 적은 冬至에 해당한다⁸⁴⁾.

『內經』에서는 陽氣가 가장 많은 때를 司天之氣로 정하지만, 客氣의 次序는 陽氣가 발현되는 三陽三陰이 아닌, 厥陰(一陰), 少陰(二陰), 太陰(三陰), 少陽(一陽), 陽明(二陽), 太陽(三陽)의 次序를 따르고 있다. 이것은 三陰三陽이 六氣가 외부로 드러나는 標에 해당하여, 만물의 변화상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氣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봄, 여름은 陽氣가 자라나는 三陽에 해당하고 가을, 겨울은 陽氣가 수렴되어 三陰에 배속된다. 三陰三陽은 외부로 드러나는 形의 관점

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厥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⁸⁵⁾.

2) 天文의 醫學的 運用

天文의 변화는 시간과 기후의 변화를 생겨나게 한다. 『黃帝內經』에서는 天文의 변화를 땅의 八方과 하늘의 五運을 통해서 살펴야 한다고 하였으며⁸⁶⁾, 질병의 원인을 陰陽四時⁸⁷⁾라 하여 四時陰陽에 따르는 것을 養生의 근본으로 삼고 있다.

『黃帝內經』의 각 편에서는 時間의 週期에 따른 陰陽變化와 氣候變化를 살펴서 치료에 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生氣通天論』에서는 하루 중 陽氣의 성쇠에 따라서 外邪를 피해야 한다 하였고, 『診要經終論』과 『脈解篇』에서는 일년 열두달의 陰陽의 변화가 藏府의 氣血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였다. 天文과 氣候의 변화는 직접적으로 人體의 氣血循環에도 영향을 주는데, 『八正神明論』에서는 당일의 기후변화와 달의 朔望에 따라 氣血을 조절할 것을 강조하였다⁸⁸⁾. 『刺法論』에서는 天氣와 地氣의 乘降이 잘못 변화할 때 나타나는 질병들과 이를 미리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전염병의 발생도 天地運氣의 失調과 연관된다고 하였다.

『黃帝內經』에서는 질병의 발생에 대하여 外部의 天文, 氣候조건과 개인의 체질, 건강상태를 함께 고려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百病始生』에서는 天文의 변화와 藏府의 虛實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⁸⁹⁾. 또한 치료에 있어서도 天文과 氣候를 모두 살펴야 하는데, 天文과 氣候變化에 따라 치료의

85) 白裕相. 內經 運氣篇의 標本中概念에 대한 研究. 慶熙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8. p.24-25

86) 이는 「五運行大論」에서 “黃帝坐明堂, 始正天綱, 臨觀八極, 考建五常”이라 하였고, 『陰陽類論』에서 孟春始至, 黃帝燕坐, 臨觀八極, 正八風之氣 라 한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87) 『素問』「四氣調神大論」: “陰陽四時者, 萬物之終始也, 死生之本也, 逆之則災害生, 從之則苛疾不起, 是謂得道. 道者, 聖人之行, 愚者佩之”

88) 『素問』「八正神明論」: “天溫日明, 則人血淖液, 而衛氣浮, 故血易瀉, 氣易行, 天寒日陰, 則人血凝泣, 而衛氣沈. 月始生, 則血氣始精, 衛氣始行. 月郭滿, 則血氣實, 肌肉堅, 月郭空, 則肌肉減, 經絡虛, 衛氣去, 形獨居. 是以因天時而調血氣也.”

89) 『靈樞』「百病始生」: “因於天時, 與其身形, 參以虛實, 大病乃成.”

82) 尹暢烈. 干支와 運氣에 關한 研究. 慶熙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87. pp.73-75

83) 尹暢烈. 干支와 運氣에 關한 研究. 慶熙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87. pp.78-79

84) 尹暢烈. 干支와 運氣에 關한 研究. 慶熙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87. pp.78-79

방향을 달리 해야 한다고 하였다⁹⁰⁾.

이와같이 천체운동에 의해 나타나는 기후와 시간의 변화는 인체에 많은 영향을 주지만, 천문학이 의학에 미친 영향에 있어서는 동, 서양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서양에서는 단순히 신체에 일어난 질병에 대한 원인, 치료에 집중한데 대하여, 동양에서는 공간적인 장소와 방위, 지리조건 외에도 시간의 변화에 의해서도 질병의 발생과 치료방향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실제로 『黃帝內經』에서는 天文과 氣候條件을 상세히 살펴서 치료에 임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면은 西洋醫學과 구별되는 점이다. 東洋醫學에서는 藏府와 經絡 등의 사람의 몸도 宇宙의 생성과 운행의 이치에 맞추어 생성된다고 이해하였으며, 천문의 변화는 지상의 기후에 변화를 가져와서 인체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現代科學에서도 기후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疾病들과 시간대에 따라 생체주기가 달라진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대기 중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후 변화는 주기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데, 이들의 영향을 받아 반응을 일으키는 생체에는 생체리듬이 있어서 이들의 조화가 건전한 생명을 유지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시간대별로 우리 몸안의 생체시계는 인체가 처한 생물학적 환경과 조건을 파악하면서 조절해 나간다. 인체의 시상하부의 송과선(pineal gland)에 생체리듬을 조절하는 기관이 있다고 조사되었는데, 여기서 분비되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이용하여 생체시계를 조절한다는 것이다⁹¹⁾.

기후의 변화는 각종 질병을 발생시키고 악화시키는데, 예를 들면 류머티즘, 관절염이 저기압에 악화된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다. 그 외에도 기관지 천식, 각혈, 급성 녹내장, 심근경색, 급성 기관지 천식은 고기압이나 저기압의 접근과도 관계가 있다. 심장 혈관병의 악화와 태양의 흑점 및 地磁氣活動度の 상관관계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인데, 심근경색

임상 연구에서 지자기 활동도가 높은 날에 심장질환이 증가한다는 사실이 보고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녹내장 등의 안질환과 신장병, 위궤양, 간질 그리고 류머티즘에도 보이며 지자기가 교란되는 날에는 심장 박동수가 불안정해진다. 또한 태양 활동에 의한 지구의 지자기 교란은 인간의 정신 활동을 혼란시킨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으며, 정신 분열증 환자 수도 주기적 변화를 보인다고 한다⁹²⁾.

『黃帝內經』에서도 시간의 주기에 따른 藏府의 생체기능이 달라진다고 설명하였으며, 藏府의 주기적 변화는 질병의 발생과 치료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生氣通天論』에서는 인체의 陽氣가 晝夜에 따라서 生, 隆, 虛, 閉의 변화를 나타낸다고 하였으며⁹³⁾, 『靈樞營衛生會篇』에서는 음기는 밤에 가장 왕성하면서 체내에서 주로 활동하며, 양기는 낮에 가장 왕성하면서 체표에서 주로 활동한다고 설명하고 있다⁹⁴⁾. 明代의 李中梓는 시간에 따라 기혈이 장부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였는데, 『醫宗必讀』에서 “寅時氣血注于肺, 卯時氣血注于大腸, 辰時氣血注于胃, 巳時氣血注于脾, 午時氣血注于心, 未時氣血注于小腸, 申時氣血注于膀胱, 酉時氣血注于腎, 戌時氣血注于心包, 亥時氣血注于三焦, 子時氣血注于膽, 丑時氣血注于肝.”이라 하여 시간에 따르는 藏府의 기혈성쇠를 설명하였다⁹⁵⁾. 또한 질병의 경중과 예후의 판정에 있어서도 시간의 변화에 따르는 陰陽盛衰에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다⁹⁶⁾.

실제로 임상에서 질병을 치료할 때에도 天文, 曆

90) 『靈樞』「官能」: “用鍼之服, 必有法則, 上視天光, 下司八正, 以辟奇邪, 而觀百姓, 審於虛實, 無犯其邪, 是得天之露, 遇歲之虛, 救而不勝, 反受其殃. 故曰必知天忌.”

91) 홍성길, 기상과 건강. 서울. 교학연구사. 1995. pp.260-263

92) 崔允文 主編, 時間生物學.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6. pp.171-173

93) 『素問』「生氣通天論」: “故陽氣者, 一日而主外, 平旦人氣生, 日中而陽氣隆, 日西而陽氣已虛, 氣門乃閉.”

94) 『靈樞』「營衛生會」: “日中而陽氣爲重陽, 夜半而陰氣爲重陰, 故太陰主內, 太陽主外, 各行二十五度, 分爲晝夜. 夜半爲陰隲, 夜半後而爲陰衰, 平旦陰盡, 而陽受氣矣. 日中而陽隲, 日西而陽衰, 日入陽盡而陰受氣矣. 夜半而大會, 萬民皆臥, 命曰合陰. 平旦陰盡而陽受氣, 如是無已, 與天地同紀.”

95) 崔允文 主編, 時間生物學,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6, pp.94-95

96) 『靈樞』「順氣一日分爲四時」: “夫百病者, 多而旦慧晝安, 夕加夜甚, 何也...朝則人氣始生, 病氣衰, 故旦慧. 日中人氣長, 長則勝邪, 故安. 夕則人氣始衰, 邪氣始生, 故加. 夜半人氣入藏, 邪氣獨居於身, 故甚也.”

法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해마다 반복되는 질환과 갑자기 발생하는 질환을 구별하고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게 된다. 질병을 발생시키는 원인은 外因과 內因, 不內外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外因은 六氣와 외부의 邪氣인 六淫을 말하는데, 外因은 정상적인 상태의 常과 비정상적인 상태의 變으로 구분할 수 있다. 運氣에서도 主運, 主氣는 정상적인 기후변화인 常에 해당하며, 客運, 客氣는 비정상적인 상태의 變에 해당하고, 일년 전체의 기후변화인 大運은 常과 變을 포함하고 있다⁹⁷⁾.

질병의 발생은 비정상적인 기후변화인 變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기후의 常에서도 발생한다. 예컨대, 사계절의 節氣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환들이 常에 의한 질환에 해당하는데, 장마철에 濕이 많아지는 것은 정상적인 기후로서 이때에는 濕邪에 의한 질환이 많아지는 것이 常에 의한 질환에 해당한다. 반면에 해당 節氣의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기후변화가 變에 해당하는데, 유난히 더운 여름 혹은 서늘한 여름 등이 變에 해당하며, 이러한 기후변화는 곧바로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계절적인 기후, 기상 常과 變은 질병의 원인이 되므로, 의사는 정상적인 기후인 常과 이상변화인 變을 알고 있어야 節氣마다 반복되는 常에 의한 질병과 비정상적으로 갑자기 발생하는 變에 의한 질병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 정상적인 기후인 常은 사계절과 24절기 등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며, 기후의 이상변화는 天文, 曆法의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기후변화의 관찰을 통한 상대적인 평가가 있어야만 알 수 있다. 따라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天文, 曆法을 익히고, 매년 반복되는 節氣와 六氣의 흐름을 알고 있어야 기후의 常과 變에 의한 질병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韓醫學의 연구에 있어서 東洋 天文學과 氣候, 時間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쇠퇴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西洋 天文學의 도입과 함께 天體現象에 대한 數理的인 부분에 치우친 것이 중요한 원인이다.

97) 大運은 일년 전체의 광범위한 기간을 포괄하므로, 常은 바탕에 깔려있고 變이 일년 동안의 정상적인 常 위에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天文의 변화는 氣候와 時間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東洋 天文을 韓醫學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運氣學과 藏府, 經絡 등의 기본 토대가 되는 天文原理를 깊이 있게 조사하여, 의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III. 結 論

1. 『黃帝內經』은 二十八宿와 北極星, 北斗七星, 五星에 대한 천문학적 내용을 기록하고 있으며, 天文觀測은 당시의 천문학적 관점을 수용하고 있다. 동양 천문학에서는 日月五星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방식에 따라서 전통적인 曆法에서 말한 左旋說과 후대에 朱子와 성리학자들이 제시한 右旋說로 나뉘지는데, 『黃帝內經』의 천체순환에 대한 부분도 당시의 천문이론에 영향을 받아서 다르게 해석하였다. 「六節藏象論」의 “日行一度 月行十三度而有奇焉”라는 日月의 運行에 대하여 王冰은 전통적인 曆法의 설명과 같이 天左旋, 日月星辰右旋의 說을 따르고 있으며, 張介賓은 朱子와 같이 左旋說을 따라서 설명하였다. 이러한 차이점은 천문학적 관점이 달라짐에 따라서, 『內經』의 문장을 다르게 설명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28宿는 하늘을 동서남북의 사방으로 구획하고, 주기적으로 순환하는 日月五星을 관측하기 위한 기준좌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黃帝內經』에서는 28宿를 인체의 十二經脈으로, 태양을 陽氣에 비유하였는데, 「衛氣行」에서는 衛氣가 하루 동안에 전신의 經絡을 순환하는 것이 태양이 1년동안 黃道상에서 二十八宿를 순환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하였다. 또한 28宿는 十干化運을 통해 지상의 기후변화를 일으키며, 지상의 陽氣가 시작하고 끝나는 天門, 地戶의 좌표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二十八宿의 五行配屬은 사계절 중에서 春의 지상의 방위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다른 계절에서는 천체의 二十八宿 방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五行配屬이 맞지 않게 된다. 즉, 천구

의 방위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절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봄에 지상에서 北極星과 반대쪽이 되는 남쪽을 향한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하늘의 二十八宿를 지상의 방위에 따라 五行에 배속시킨 것이다.

3. 『黃帝內經』에서는 北極星과 北斗七星을 天文을 관측하는 기준점으로 삼고 있으며, 北極星의 천체순환으로 질병의 전변과 기후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黃帝內經』에서 北極星과 北斗七星의 천문현상으로부터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고자 한 내용은 「九宮八風」과 「歲露論」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동양 천문학에서는 北極星과 北斗七星 등의 천문관측을 점성술적인 면으로 이용하였으며, 『黃帝內經』에서도 天文을 점성술적인 면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東洋天文學과 구별되는 점은 이러한 면을 기후변화와 연관시켜 질병의 전변을 예측하고자 한데에 있다. 「九宮八風」과 「歲露論」에서는 北極星과 北斗七星의 방위와 기후변화를 연관시키고 있는데, 北極星은 팔괘의 방위에 따라서 기상과 질병을 예측하고자 하였으며 北斗七星은 月建法을 통해서 節氣와 기후변화를 판단하는데 활용하였다.

4. 五行星은 五行의 정기를 통해 지상에 영향을 주며, 주기적으로 천체를 순환하고 있다. 『黃帝內經』에서는 「氣交變大論」에 나타난 것과 같이 한해의 오행속성을 五星의 변화를 통해서도 예측할 수 있다고 한 점이다. 五運의 변화는 그 해의 오행기운이 28宿의 별자리 사이를 지나가면서 나타는데, 「氣交變大論」에서는 五行星의 변화를 통해서도 大運의 太過, 不及을 예측할 수 있다는 천문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黃帝內經』에서는 五星의 色과 高度, 遠近, 軌道의 이탈 여부를 관찰하여 이의 太過, 不及으로 吉凶을 예측하고자 하였으며, 天文의 밝기와 고도, 색과 운행케도와 이로 인한 太過, 不及은 인체의 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였다.

5. 運氣學은 五運과 六氣로 나타나는 하늘과 땅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므로, 천문학적인 배경을 이해한다면 運氣學의 연구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主運의 交司時刻는 4년을 주기로 하여 申子辰, 巳酉丑, 寅午戌, 亥卯未년 마다 25刻씩 늦어지는 순환을 반복하는데, 五行이 방위와 연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主運의 交司時刻는 태양이 지구주위를 회전하는 방위와 연관될 것으로 여겨진다. 六氣는 五運이 지상에 내려와 변화할 때의 氣의 흐름을 나타내므로 땅의 오행법칙을 위주로 하는 主氣와 하늘의 음양변화를 따르는 客氣로 구분된다.

客氣의 次序는 태양에너지에 의한 陰陽氣의 多少에 의해 좌우되는데, 二十四節氣 상에서 司天之氣는 夏至에 해당하고, 在泉之氣는 冬至에 해당한다.

6. 節氣마다 반복되는 질환과 기후의 이상변화로 나타나는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天文, 曆法을 통한 節氣와 六氣의 흐름을 알고 있어야 기후의 常과 變에 의한 질병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運氣學과 藏府, 經絡 등의 기본 토대가 되는 天文原理를 깊이있게 조사하여 한의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參考文獻

「논문」

1. 白裕相. 內經 運氣篇의 氣味運用에 대한 研究. 慶熙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2.
2. 丁彰炫. 黃帝內經 中の 時空模型에 대한 研究. 大韓韓醫原典學會誌. 2002. 15(1)
3. 高晟豪, 李南九. 靈樞歲露論에 관한 研究. 大韓原典醫史學會誌. 2002. 15(2)
4. 尹暢烈의 九宮八風에 대한 研究-醫哲學, 大田大學校 原典醫史學教室. 1998.
5. 白裕相. 內經·運氣篇의 標本中 概念에 대한 研究. 慶熙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8.
6. 李文揆. 古代 中國人의 하늘에 대한 天文學的 理解. 서울대학교 理學博士學位論文. 1997
7. 尹暢烈. 干支와 運氣에 關한 研究. 慶熙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87.

「단행본」

1. 朴贊國. 黃帝內經素問注釋. 서울. 集文堂. 2005.
2. 尹暢烈 譯. 黃帝內經素問 王氷注. 서울. 珠民出版社. 2003.
3. 尹暢烈 譯. 黃帝內經素問 王氷注. 서울. 珠民出版社. 2003.
4. 金達鎬 編譯. 黃帝內經 靈樞. 서울. 醫聖堂. 2002.
5. 金達鎬 編譯. 黃帝內經 素問. 서울. 醫聖堂. 2001.
6. 韓東錫. 宇宙變化的 原理. 서울. 대원출판. 2001.
7. 楊力. 中醫運氣學. 서울. 法仁文化社. 2000.
8. 조셉니덤 著. 이면우 譯. 中國의 科學과 文明. 서울. 까치글방. 2000.
9. 金秀吉 譯. 天文類抄. 서울. 대유학당. 1998.
10. 야마다 게이 지 著. 김석근 譯. 朱子の 自然學. 서울. 통나무. 1998.
11. 黎靖德. 朱子語類. 서울. 청계출판사. 1998.
12. 金秀吉 譯. 天文類抄. 서울. 대유학당. 1998.
13. 郭東烈. 醫易啓悟. 서울. 成輔社. 1997.
14. 崔允文 主編. 時間生物學.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6.
15. 홍성길. 기상과 건강. 서울. 교학연구사. 1995.
16. 陳遵媿. 中國天文學史 第二冊. 대만. 明文書局. 1993.
17. 『論語』. 四書章句集注. 서울. 明文堂. 1992.
18. 雷順群 主編. 內經多學科研究. 北京.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90.
19. 張介賓. 類經. 서울. 大星文化社. 1982.
20.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大星文化社. 1982.
21. 劉溫舒 著. 岡本爲竹 撰. 尹暢烈 譯. 運氣論 奧諺解. 大田大學校 原典醫史學教室.
22. 方藥中. 黃帝內經素問 運氣七篇講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23. 程七德 主編. 黃帝內經素問注釋匯粹 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